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공동체기반 생태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ating Factor Analysis Viewed
from Process of Creating Community-based
Eco-tourism village
- Focused on Ramsar Village, in Jeju Island -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 세 진

공동체기반 생태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박세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손 용 훈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소단위 마을에서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업으로 생태관광마을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주민 및 단체의 역량부족과 참여저조로 인해 사업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생태관광마을을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하고, 그 요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마을에 작용하는지에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지역의 사업과정을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선흘리 동백동산 람사르시범마을은 선흘곶자왈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흘곶의 일부인 동백동산의 생태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람사르마을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이를 토대로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을의 자원인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람사르시범마을의 사업과정을 분석하고, 마을의 자원과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구조를 파악하여 지역경제와 마을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활성화 요인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람사르시범마을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리더와 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조직의 공동체기반 활동, 자원의 관리와 보전, 람사르마을 생태관광프로그램, 이익분배의 형평성이다. 이를 토대로 나타난 람사르시범마을의 생태관광마을만들기 사업과정의 특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마을의 리더와 마을 사업의 현안에 대해 조언을 받기위해 다양한 인적구성으로 이루어진 운영조직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과 주민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공유하며, 보존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마을의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마을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내로 환원되는 수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 있게 이익을 분배하고 마을에 환원하는 경제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적인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다른 지역의 생태관광마을만들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램사르시범마을에서 진행하여 도출한 활성화 요소들 중 생태관광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반의 마련 등은 성공 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지역을 연구하는 기간의 부족하다는데 본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주요어 : 생태관광, 주민참여, 공동체 기반, 램사르시범마을, 선홍1리

학 번 : 2013-22023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8
1. 연구의 배경	08
2. 연구의 목적	10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3절. 대상지 선정 이유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생태관광과 생태관광마을	18
1. 생태관광의 동향과 한계	18
2. 생태관광마을	19
2절. 생태관광마을에 대한 사례 연구	22
1. 국외 생태관광마을 사례연구	22
2. 국내 생태관광마을 사례연구	26
3.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의 문제 및 한계점에 대한 연구	30

3절.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이론연구	31
1. 생태관광의 활성화 요인	31
2. 공동체 기반관광의 활성화 요인	32

제3장 대상지의 이해와 분석의 틀

1절.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이해	36
1.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현황	36
2.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자원	36
2절.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만들기 과정	39
1.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 만들기 활동	39
2.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활성화	43
3절. 분석의 틀	44
1. 분석방향의 설정	44
2. 분석의 틀	45

제4장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 공동체기반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요인 분석

1절. 람사르시범마을 리더와 주민협의체의 역할	48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	48
2.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역할	51
3. 이해당사자 의견합의 과정	53

2절. 람사르시범마을 주민조직의 공동체기반 활동	55
1. 주민조직 현황과 참여 과정	55
2. 원탁회의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0
3. 지역공동체 활동에 의한 주민인식변화	64
3절. 람사르시범마을 자원의 관리와 보전	67
1. 자원의 가치공유와 관리 방안	67
2. 람사르시범마을의 자원 보전을 위한 활동	72
4절. 람사르시범마을 생태관광프로그램	74
1. 꽃자왈과 람사르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74
2. 생태관광프로그램의 활성화	76
5절. 람사르시범마을 이익분배의 형평성	79
1. 생태관광활동을 통한 마을의 수혜	79
2. 형평성 있는 이익분배를 위한 과정	82

제5장 결론

■ 표 목차

[표 2-1] 생태관광 마을만들기의 문제 및 한계점에 대한 선행연구 30
[표 2-2] 선행연구의 공동체기반 활성화 관련 요소 35
[표 3-1] 추진협의체 구성 목록 40
[표 3-2]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요인 최종 구성항목 46
[표 3-3]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구성항목 47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3-1] 선홍1리 람사르마을 위치 36
[그림 3-2] Arc Gis를 이용한 3차원 지형으로 본 곳자왈 지역분포 38
[그림 3-3] 추진협의체 회의 사진 39
[그림 3-4] 람사르마을의 시설물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현황 40
[그림 3-5] 선홍1리 람사르마을 운영프로그램 42
[그림 3-6] 분석의 틀 45
[그림 4-1] 주민의 친절도 관련 응답 57
[그림 4-2] 주민조직체계 관련 응답 58
[그림 4-3] 동백동산 습지의 생태적 가치 관련 응답 70
[그림 4-4] 동백동산 곳자왈의 생태적 가치 관련 응답 71
[그림 4-5] 마을자원의 역사·문화적 가치 관련 응답 71
[그림 4-6] 자원보전중심의 운영 관련 응답 71
[그림 4-7] 자원의 보존체계 관련 응답 72
[그림 4-8] 생태프로그램 참여대상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관련응답 78
[그림 4-9] 일반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관련응답 78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활성화와 도시 집중적 발전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여왔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부처의 중구난방식 사업진행과 중앙집권적 운영, 하향식 접근 및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로 마을 만들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여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태적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이재혁, 2016).

또한, 최근 10년여 동안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마을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지역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해왔지만 지역의 조직 및 주민의 역량 부족과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생태관광마을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생태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공동체의 형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을 활성화를 이루어낸 각각의 요인들을 도출하여 성공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마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생태관광마을을 만들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하고, 그 요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마을에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선홍리 람사르시범마을의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의 꽃자왈 숲은 제주형 총회 의제로 확정되어 ‘제주도 용암숲 꽃자왈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자원’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꽃자왈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꽃자왈의 지역 별 역사·문화·생태적 특성에 맞는 마을을 육성하여 마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도모하자는 논의가 꽃자왈 보전의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홍꽃자왈 지역에 위치한 본연구의 대상지 선홍1리 랫사르시범마을의 동백동산(선홍 꽃자왈)은 1986년 도지정문화재로 채택되었고, 2010년 습지보호지역, 2011년 랫사르습지로 지정되어 그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3년 ‘랫사르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표제아래 세계최초 랫사르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서 하향식 접근을 통한 주체적인 마을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또한 2015년 5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랫사르총회에서 선홍1리의 주민교육과 소통, 참여 및 보전과 관리에 대한 선진사례로 소개되었을 만큼 주민주도형 사업을 토대로 지역의 활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상향식접근을 통해 생태관광마을 조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마을을 운영하는 선홍1리 랫사르시범마을의 조성 초기단계부터의 마을 활성화 동력의 원인과,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하며, 자연을 보전하고 주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본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마을 조성 및 운영사례 분석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과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에 필요한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지로 최근 마을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관광을 운영하며, 리더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마을의 활성화를 이루어내어 마을만들 기의 성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선홍리 람사르시범마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생태관광과 공동체(커뮤니티)기반생태관광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찾고 변화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생태관광 및 커뮤니티기반관광 의 활성화요소를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도가 생태관광지로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 탐구하고 공동체기반의 생태관광마을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선 홍리 람사르시범마을에 조성 및 운영과정을 확인한다.

둘째, 이를 통해 도출된 요소들을 람사르시범마을 생태관광만들기 사업 도 입이전 단계부터 활성화된 마을을 유지시키는 안정단계까지 적용하여 각 요 소가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였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 하여 정리한다.

셋째, 위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요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마을생태관광사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선홍리 람사르시범마을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랫사르습지인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랫사르시범마을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11년 선흘리 동백동산의 습지인 먼물깎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랫사르습지 마을의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이 시행되어 생태관광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면서부터 2013년 랫사르시범마을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운영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마을만들기의 사업에 대한 이해이며 구체적으로 선흘리 랫사르시범마을의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와 마을의 활성화이다. 사업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단계부터 랫사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후 지역역량을 육성하여 발전하는 단계까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공동체의식 형성에 대한 주민 인식의 변화와 마을 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주민참여확대의 동력, 생태자원과 마을의 생태관광활동에 대한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생태관광으로 인한 지역소득의 변화와 같은 내용을 깊이 살펴본 후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1차적으로 국내외 생태관광과 공동체기반관광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마을의 사례를 통해 활성화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다. 2차적으로는 생태관광마을 사업 진행과정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특성을 분석하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의 원인을 찾는 것에 주력한다. 3차적으로 생태관광마을의 현재 문제점과 미래비전을 파악하여 램사르시범마을의 특수성과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기초적 자료는 단행본, 논문, 선홍리 관련서적, 사업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 문헌과 각종 자료들로 취할 수 없는 마을내부의 사업 및 마을주민 인식의 변화, 생태관광 활성화와 같은 내용은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와 관광객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1. 조사방법

‘선홍리 램사르시범마을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도출하고 마을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을 파악하여 마을의 활성화요인을 제시’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을 계획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램사르시범마을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분석하고, 2011년 사업시행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난 마을의 변화과정을 파악한다.

둘째, 램사르시범마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마을의 의견합의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형 사업운영 프로세스를 가지게 하는 동력 및 지역중심형 활동으로 인해 지역 내 파급되는 가치들을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찾아내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셋째, 마을의 생태관광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홍리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도출된 마을의 공동가치와 활성화 요인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마을의 이해당사자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진행한다.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지역주민과 실제 관광프로그램 및 주민교육에 참여하는 마을 운영조직 위원인 마을의 리더,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 이유는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마을 내부에서 사업에 경과에 의한 변화과정을 겪었으므로 그들로부터 마을의 활동과 변화에 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한 관점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인식구조를 파악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당 1~ 2 시간동안 인터뷰를 진행하고, 1차, 2차, 3차에 걸친 대화를 통해 마을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와 인식구조를 파악하여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의 과정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마을에서 운영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설문조사는 선홍1리의 생태관광프로그램과 운영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방문하는 동백동산의 생태관광 및 음식체험 프로그램 참여자42명과 동백동산의 일반방문객 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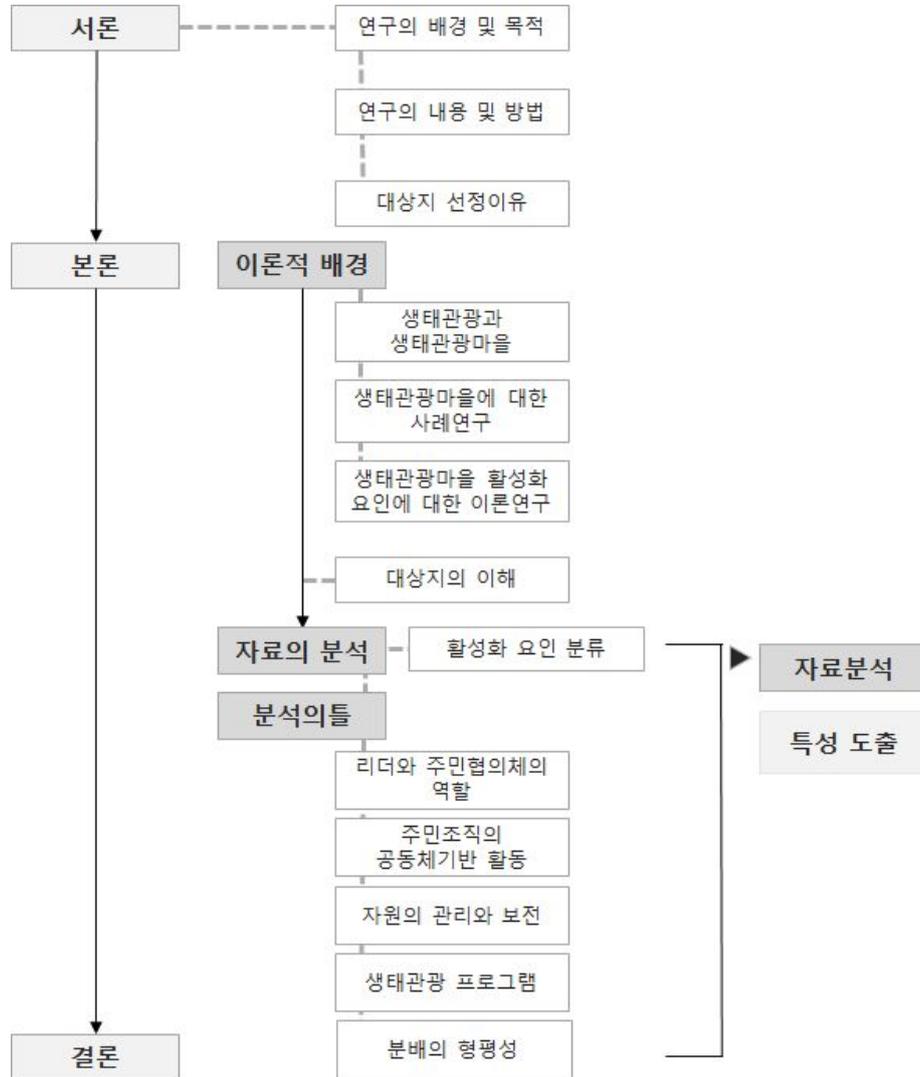
항목구성은 방문 목적과 마을운영에 대한 방문자의 의견, 프로그램 및 동백

동산의 생태환경 및 프로그램 대한 만족도, 재방문 의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이해당사자 심층면접, 방문객 설문으로 이루어진다.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는 마을자원 및 기초적인 마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으며, 현장조사는 자료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확인하고 마을의 공간정보와 사업현황, 마을의 생태관광협의체 주민조직구조 및 활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014년 01월, 2014년 7월, 2015년 1월, 2015년 02월, 2015년 12월, 2016년 3월 총 7회에 걸쳐 대상지 공간조사와 이해당사자인터뷰(이장, 생태관광전문가, 제주도시청 공무원, 생태관광협의체 사무관, 마을주민 등), 마을 운영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의 마을자원보존과, 지역경제구조 및 지역거버넌스 조직의 운영에 대한 의식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의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실시한 심층면접은 람사르시범마을 이해당사자(생태관광전문가, 부녀회장, 이장, 청년회장, 마을생태관광단 직원2명, 동백동산관리자, 마을주민, 동백동산 지질해설가, 마을만들기 전문가, 환경운동가 등) 16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016년 3월, 5월, 6월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마을의 관광프로그램의 만족도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의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3절 대상지 선정 이유

제주의 마을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제주만의 독특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제주형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 사례를 찾기 어렵다(제주발전연구원, 2011). 이에 본 연구는 제주의 특색있는 마을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의 생태관광마을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중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선흘리 람사르시범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지 선정의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지역의 산업 및 사회구조가 다른 지역의 농촌마을과 차별화되므로 제주만의 특수성을 활용한 생태관광 마을만들기가 가능하다.

둘째, 최근 환경부는 보전중심의 운영체제에서 생태관광을 활용하여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면서 자연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선흘리 람사르시범마을은 2011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주민주체 습지생태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전국 5대 생태관광지로 선정되었고,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의 모델사례로 생태관광 성공모델 및 생태관광 집중 육성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셋째, 선흘리 람사르시범마을은 선흘곶자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며 이를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의 요소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둔 성공적인 생태관광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잠

재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며, 현재 이와 같은 마을만들기 생태관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에 마을주민, 전문가, 환경운동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생태관광운영조직이 마을관광을 주도하고 있으며, 마을의 사업 및 자원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고 주민참여율 또한 높아 공동체기반 생태관광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생태관광

1. 생태관광의 동향과 한계

1990년 대량관광(Mass tourism)에 따른 자연환경파괴 등이 문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생태관광은 1987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제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국제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최희선, 2011).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발표된 시기에, 생태관광이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환경부, 2010),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며 생태관광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또한 주5일근무제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변화와 여가생활에 대한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태관광에 대한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자연·생태자원을 보호의대상으로만 접근했던 것에서 벗어나 ‘현명한이용(Wise Use)’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박창석등, 2009), 자연자원을 기반으로한 환경교육 생태 체험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생태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최희선, 2011).

2010년 수행된 통계조사에 따르면 생태관광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생태관광 수요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국내 생태관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이후 정부 6개 부처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전국 12개 지역에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 3월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제 2조 18항에 생태관광

정의를 포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도입을 통해 순천만을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통일, 2014).

2. 생태관광마을

(1)농촌관광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자연, 전통문화, 농업을 매개로 농촌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자연, 향토문화, 역사, 독특한 향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개발사업임과 동시에 관광사업이다. 농촌관광의 핵심은 문촌생활, 자연자원, 문화를 포함한 각종 자원을 관광객 혹은 방문객과 농촌주민의 교류를 통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윤유식, 2008).

농촌관광은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 농업, 농특산물 등을 매개로 주민들과 교류하며 즐기는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농촌에는 소득증대와 활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방문객에게는 휴양과 휴식,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관광매개형 지역 가꾸기의 구체적 방법으로 정의하였다(조록환, 2003). 농촌관광은 넓은 의미로 자연휴양림, 펜션 등 농촌의 다양한 휴양시설 방문, 농촌지역 축제 참가 등이 포함된 농촌관광으로 정의되거나, 좁은 의미로 농촌관광마을 방문 및 농촌체험 활동 참가 등에 국한된 농촌관광으로 보기도 한다(송미령·성주인, 2005).

(2)생태마을

생태마을은 생태공동체 운동인 habitat Agenda를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조연희·임승빈, 2004)으로, 생태마을이란 용어는 길먼(Gilman, 199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생태마을은 ‘인류의 건전한 발전을 돕고 먼 장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활동 등을 마을에 조화시키는 인간적 규모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정착지’ 라고 정의되고 있다.

생태마을은 1990년 초반부터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근대화, 산업화에 대항한 초기 생태공동체운동에서부터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정주공간의 조성에 대한 관심, 환경과의 조화를 이룬 지역개발전략에 대한 관심 등에 제도화되어지고 있는 최근의 동향까지 생태마을에 관련한 실천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환경부, 2004).

생태마을은 자연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생활·생산양식을 가진 마을로, 마을의 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 친화적 삶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는 마을이다(환경부, 2004). 또한,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는 주거환경이 아닌 생태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주민들의 실천의 장으로써 현시대에 대안적인 주거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생태마을은 도시나 농촌의 일반적 주거양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패턴과 문화의 대안으로 제시되며, 동시에 에너지·폐기물·자원의 순환체계를 가지고 생태적인 안정성을 이룰 수 있는 생활규모를 조성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 환경의 건강성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여 농촌을 다시 살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이상엽·심분보·정건섭, 2004).

생태마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된다. 생태마을이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경제, 경제·환경, 환경·사회간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생태적 부양능력, 사회적 형평성, 살만한 정주환경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내의 생태마을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는 방향은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대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갖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생태마을 계획요소에 대한 현황분석과 계획방향이 중요하다. 생태마을의 특성은 5개로 생태적 특성, 공간적 특성, 사회적 특성, 문화적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생태마을에 지속가능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5가지 특성이 적용되어야 한다(송정석, 2012).

(3)생태관광마을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태도

생태관광마을은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유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춘 인간의 집단” 이라고 규정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 위에 ‘마을’ 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여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설립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최다성, 2012).

또한, 농촌에서 일어나는 관광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간의 연결망,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계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사회자본 형성은 관광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유광민, 2006).

생태관광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이란 관광객과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 사이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광객은 관광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지역주민은 관광활동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얻는 사회교환과정(social exchange process)으로 설명될 수 있다. 관광영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에 비해 지역사회의 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이진희, 2000)

생태관광지는 관광대상이기 이전에 고유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의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주민을 제외한 생태관광은 성립될 수 없으며, 주민의 가치를 외면한 환대성의 요구는 공연한 구호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사회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노력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계획·실시하는 주민운동을 의미하므로 생태관광마을조성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신대순, 1981).

생태관광에서는 자연지역과 지역주민, 관광사이의 통합적 관계(synergitic

relationship)를 통해 보전과 개발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다(강심겸, 2005). 또한 생태관광에서 지역주민들은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관광자원을 보존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절 생태관광마을에 대한 사례 연구

1. 국외 생태관광마을 사례연구

1) 야쿠시마, 일본

황달기(2015)는 일본야쿠시마 생태관광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의 선진사례라고 볼 수 있는 야쿠시마를 사례로 야쿠시마의 생태관광 현황과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고, 특히 주민들이 주체적이며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지역의 생태자원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주목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현재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강영훈(2005)은 제주의 생태도시모델로서의 야쿠시마 Zero Emission Project의 적용가능성 분석 연구는 생태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의 생태도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의 도시들 중 지속가능도시 프로그램 접근방법이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귀포시에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문화적 보전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한 생태도시인 야쿠시마의 특성과 Zero Emission Project의 시나리오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관점에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야쿠시마 생태관광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생태환경과 관광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조사를 비롯하여,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써 지역이 가지는 관광의 가치에 주목하고, 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생태관광마을인 야쿠시마의 현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현황

야쿠시마는 가고시마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작은 섬으로 1,000m 넘는 산이 45개나 있으며, 수령이 1,000년을 넘는 삼나무가 분포하고 다양한 기후가 남북으로 수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http://www.yakushima-town.jp>, 2015).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1993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야쿠시마의 생태관광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 원인은 1993년 설립된 ‘야쿠시마야외활동종합센터(YNAC)’에 의한 에코투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목재생산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삼림의 생태서식지로서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쿠시마의 생태관광활성화의 특성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이며, 두 번째는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민참여활동이다.

■ 특징

야쿠시마를 대표하는 3대 코스는 생태관광인 조몬스기, 시라타니운스이쿄(원령공주의 숲), 야쿠스기랜드이며, 가장 인기있는 관광형태는 소그룹이나 단체에 의한 트래킹이다. 야쿠시마에는 다양한 트래킹 코스와 방법을 안내한 단행본이 발간되어 있다. 원시적인 자연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코스를 체력과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은 야쿠시마 생태관광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산로와 탐방로의 단계적 구별은 생태관광의 깊이와 폭을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이자 야쿠시마 생태관광의 특징이다.

야쿠시마의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의 생태환경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와 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야쿠시마는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숲으로 삼림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자연유산지연의 원시림을 대상으로 가이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

태환경과 삶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이드활동이 대부분이 회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에서 지역활성화의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여 내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내발형 생태관광의 중심에는 야쿠시마 관광센터가 있으며 이 단체는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야쿠시마의 생태관광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진흥정책인 ‘환경문화촌구상’을 구상 할 당시 지역의 생태환경과 경관, 역사의 보존하고 이를 생태관광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이를 지역정비 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행정의 역할이 야쿠시마 생태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다거북 연락협의회와 같은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과 지구조직들로 결성된 단체가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호와 관광객들의 관리와 통제하는 활동들이 야쿠시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2) 시라카와, 일본

김명주(2010)는 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의 가치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의 가치보존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표 전통마을인 안동화회마을과 시라카와마을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회마을 보존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보존관리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시라카와마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현황

시라카와마을은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외관과 그 안에서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주민의 삶을 볼 수 있으며 농,산촌 마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갓쇼즈쿠리(전통가옥)로 전통가옥이 잘 보존

1) 황달기(2015), 일본 야쿠시마 생태관광의 현황과 과제, 일본문화연구소 p.332-346 재구성
 강영훈(2005), 제주의 생태도시모델로서의 야쿠시마 Zero Emission Project의 적용가능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p.374-375 재구성

되어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농업과 임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적 특성에서 벗어나 2차,3차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또한 여러 개의 마을이 접하고 있는 입지조건으로 인해 마을은 결속과 협동을 상징하는 유이의 정신을 비롯해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시라카와마을의 특성은 보존활동, 홍보, 이해관계자의 태도이다.

■ 특징

시라카와 마을은 주민과 행정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마을을 보존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모임이 결성이후로 주민 스스로가 주민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마을전반에 걸친 보존활동이 포함되었다. 보존회는 자체 교육을 통해 보존활동을 수행하며, 보존재단은 전통가옥 수리, 조사연구 등의 마을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은 관광시설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친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과 경관문제를 방지하기위해 원칙을 정하여 실천하며, 특히 기존의 전통가옥을 관광시설로 활용하여 마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마을 홍보방법으로 행정에서는 홍보물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통일된 디자인 문구를 사용하여 마을의 특수성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른 홍보방법은 라이트업(light up)행사가 있는데, 마을의 곳곳에 대형조명을 설치하여 저녁에 불을 밝히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마을 특유의 모습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으며, 예술가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라카와 마을의 주민들은 전통가옥을 활용하면서 마을경관의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협동과 결속을 의미하는 ‘유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예로 비수기 호객행위 방지를 위해 순번제로 안내체계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²⁾

2) 김명주(2010), 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의 가치보존 방안 -일본 시라카와마을과 비교- pp.75-109 재구성

2. 국내 생태관광마을 사례연구

1) 마하리, 평창군

이재혁(2016), ‘생태관광지 갈등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지에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에 대하여 실천적인 답을 제시하기 위해, 평창 마하생태관광지 내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의해 도출된 생태관광마을인 마하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현황

평창 마하생태관광지는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에 위치하며, 동강과 백룡동굴 등 특수한 경관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동강 경관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의 생태관광사업은 정부주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가 성과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운영권을 주민에게 이양하여 주민참여형 생태관광으로 옮겨져 현재 주민참여의 산물로서 마을기업이 나타나 생태관광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다.

■ 특징

이 지역은 기존 정부주도의 사업형태에서 주민참여 형태의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과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며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선진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행서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함으로써 기존의 주민과 정부의 갈등을 줄였다. 또한, 주민교육, 주민역량강화, 협의과정을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시설 집중배치 보다는 이동통로를 보완하고 규제, 자가관리,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확립 등 소프트웨어적 기반환경을 조성하면서 물리적 시설물을 만들어 나타난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창출보다 지역 공동의 가치를 설정하여 마을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생태적 자원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어 수익에 대한 갈등관리에 기여하였으며 위와 같은 노력이 지역의 가치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임을 나타내었다. ³⁾

2) 증도, 신안군

장은경 외 2인(2011)의 ‘AHP를 활용한 로컬 관광거버넌스 형성 요소의 중요도 분석’ 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요소 분석’ 연구는 증도사례를 바탕으로 지역관광발전을 위해 지역에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관광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성문(2013)의 ‘슬로시티 라이프사이클 지표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전략’ 연구에서는 슬로시티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찾기 위해 라이프사이클 지표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각 단계에 맞는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증도의 현황 및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 현황

연구 사례지역인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증도의 염전은 신이내린 축복의 땅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우리나라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 2010년 증도대교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전형적인 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방안들이 마련되었다.

■ 특징

‘느림의 미학’ 이라는 염전의 특성을 기반으로 증도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며 지역거주민들의 행복한 삶은 추구하자는데 의미를 두었으며, ‘금연섬’으로 지정하고 자동차보다는 도보나 자전거를 장려하는 등의 도서내 생태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증도는 산업 간의 융·복합으로 인해 주민 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관광개발을 수립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생활문화를 창조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문화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광개발계획을 수

3) 이재혁(2016), 생태관광지 갈등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평창 마하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학박사학위논문 p.34-38, 77-85 재구성

립하였다.

증도는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증도대교가 착공되었고, 대규모 리조트가 개장하였으며, 생태자원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갯벌생태전시관을 개장하였고 홍보를 위해 축제를 열기도 하였다. 이후 슬로시티 인증을 위해 자전거점으로 선포하였고 소금박물관을 열어 전통산업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여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이후 전통산업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국제 소금박람회, 섬 갯벌축제 등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자원을 외부에 홍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행정기관과 주민들은 관광시설 확충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람사르습지 등록, 전기 셔틀버스 운행, 금연의 섬 선포 등 환경정책 수립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식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지역주민에 기반 한 활성화가 아닌 정책의 일환으로 일어난 난개발과 경관훼손,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⁴⁾

3) 가시리, 제주

이자원(2015), 제주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지역개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주도 가시리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례로 한국형 마을만들기 원리의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현황

4) 장은경 외 2인(2011), AHP를 활용한 로컬 관광거버넌스 형성 요소의 중요도 분석 -신안군 증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p.8-11 재구성
장은경 외 2인(201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요소 분석 -증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p.239-140 재구성
정성문(2013), 슬로시티 라이프사이클 지표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저너락 -슬로시티 증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전문석사학위 논문, p.66-81 재구성

가시리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하며 이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랜 기간 주민 운동 방식으로 건강한 마을을 구축한 사례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주민주체의 문화 활동이 기반산업이 되어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하는데 집중하였다.

■ 특징

마을은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대표자치단을 구성하고 전문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신문화공간조성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사업체계를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마을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고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경관화 시켰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주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하드웨어 조성 이후 주민중심으로 목축문화 축제, 게르형 게스트하우스, 목장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확대시켰다.

현재 가시리는 마을신문발간, 마을달력 제작 및 배부, 게르와 같은 독특한 목축경관을 활용한 숙박사업, 사계절 축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사업과 행사의 수익의 일부를 자연환경 보존과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원하여 재투자하는 운영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지역재생과 농촌 개발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⁵⁾

5)이자원(2015), 제주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p.430-435

이지원(2016), 제주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76

3. 국내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의 문제 및 한계점에 대한 연구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그 간의 연구결과를 검토하면 주민참여의 미흡, 하향식 사업시행,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 지역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⁶⁾

생태관광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의 문제 및 한계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생태관광 마을만들기의 문제 및 한계점에 대한 선행연구

출처	내용 분석
김태윤, 김진영 2011	우리나라 10년간의 마을만들기는 정부주도형이 대부분이며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마을만들기 역시 당초 기대에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시
서정호 2013	주민참여미흡, 하향식 사업 시행, 하드웨어 위주. 지역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
이원주 2013	중앙정부가 농촌개발사업을 정책화하고 지방으로 지침을 내려주는 하향식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
이재혁 2014	거시적 계획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주도형 생태관광조성의 문제점 제시
문순덕 2015	행정중심 마을만들기에 치중하고,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 의식 부족

정리를 통해 본 논문들은 행정중심의 마을만들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및 이해당사자 중심의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6) 서정호, 2013, 구례군의 사례를 통하여 본 농촌마을만들기의 방향, 농촌계획학회지.

3절.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마을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생태관광과 공동체기반관광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활성화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이상적인 공동체기반 생태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화 요인의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위함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생태관광과 공동체기반관광 원칙 및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생태관광의 활성화 요인

Wallace와 Pierce(1996)는 보호지역인 브라질 아마존 주에서의 생태관광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위하여 생태관광의 6개의 원칙을 선정하고 각각의 세부지표들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6개의 원칙은 관광지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관광이용 패턴 도입, 지역 문화와 자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관광객의 방문 및 참여 유도, 법정 보호지역이나 자연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 여행대상지 계획 및 사업 개발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극대화, 기존의 마을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수익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다양한 편익을 제공, 관광 종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다.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만든 Ceballos-Lascurain(2010)은 영향의 최소화,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인식과 존중의 생성, 방문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긍정적 경험 제공, 보존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권한제공, 방문하는 국가의 정치적, 환경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증진을 생태관광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의 초기 생태관광 지표연구 중 김동렬, 김성일(2001)은 환경보전, 환경

교육, 주민참여, 경제적 편익창출을 4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다시 환경보전(이용경험, 이용유형, 자원보조, 개발규모), 환경교육(방문객만족, 환경교육), 주민참여(의사결정참여, 권한위임), 경제적 편익창출(소득증대, 보전과 연계)로 세분화 하여 평가 지표들로 분류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환경적 지속성(자연환경의 보전), 사회문화적 지속성(주민참여와 역량강화, 환경인식 증진 및 양질의 경험제공), 경제적 지속성(경제적 편익창출 및 합리적 분배)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세부원칙을 설정하였다.

2. 공동체 기반관광의 활성화 요인

Messer(2004)는 공동체기반 관광의 모델을 제시하여 공동체와 관광산업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커뮤니티 가치(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에 참여하여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 관광명소(관광객이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구성원의 애민티가 확보되는 지역), 서비스(지역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지역상품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마케팅(지역관광의 성격을 유지하며 관광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 관광조직(지역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및 그룹)을 공동체 기반관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소로 제시하였다.

APEC(2010)는 공동체 기반관광의 모니터링 지표로 커뮤니티에 대한 관광효과,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 상품품질, 관광기금의 공평한 분배와 커뮤니티간 혜택,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개발, 커뮤니티 기반 회사의 운영과 지원, 환경관리 시스템과 환경계획을 설정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공동체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 연구는 농어촌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동렬(2000)은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로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관광정책제도, 관광 계획, 교

육·공공인식 대안상품 개발, 모니터링, 협력을 제시하였고, 김대관(2001)은 환경지표, 사회문화지표, 경제지표로 지속가능성 평가요소를 구분하였다.

송영민(2010)은 선행연구에서 서구적 관점의 국내 공동체 기반관광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협력 네트워크, 지역 주민의 참여 등 공동체 기반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이익창출,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광사업 운영능력을 핵심항목으로 제시하고 항목별 세부요소를 도출하여 강화도래미 마을만들기 사례에 이를 적용하였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활성화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재준·이상문(2003)은 마을지도자의 선도, 마을단체의 선도, 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마을공동 협의체,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산 활동, 마을 내 자체 발전계획, 소득증대 프로그램,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초지자체 각종 마을 지원사업, 관련전문가 지원 및 네트워크 등 12개 핵심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송미령(2004)은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의 모형은 첫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존재, 둘째, 외부로부터의 관심과 지원, 셋째, 적절한 보상기제의 작동이라는 조건에서 주민간 역할 분담과 사업단계의 성숙에 따른 주민참여 수준이 제고되어 스스로 역량을 갖추어가면서 전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보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은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 리더 및 조직의 확립,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적절한 관여, 행정의 지원 등이 중요한 요인이며, 한국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수렴하고 위로부터의 지원을 중재해야 할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이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영아(2008)는 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지역 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뢰구축, 지역현안과의 일체화, 사회적 성취감이라는 이 세 가지 요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개인적으로 놓아두지 않고 지역을 향해 열어두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개방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창복(2009)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전개 과정의 동력은 자신의 생

활상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형성, 외부의 위협요소라는 외생적 요인이 커뮤니티 확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네트워크 지원조직 구성과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원심력을 높이고 소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기에 맞는 적합한 소통 문화, 마을활동가 역할, 자원조달의 자립성,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화, 다수결보다는 전원합의를 원칙으로하는 공동체의 소통 문화를 기반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해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으로 제시했다. 김동기(2011)는 비도시 지역 재생의 성공요인을 주민요인(지도자리더십,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사업 활성화), 외부요인(재원의 확보, 연계사업 유지, 외부네트워크), 입지요인(접근성, 잠재고객, 지역자원 활용) 등 3가지 요인, 총9개의 세부요인으로 도출하였다.⁷⁾

또한, 공동체 기반 마을활성화 관련 주요 요소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7) 김경화 외 3명, 2015,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도출, 「도시행정학보」제28집 제2호(2015. 6): 267-285

[표 2-2] 선행연구의 공동체기반 활성화 관련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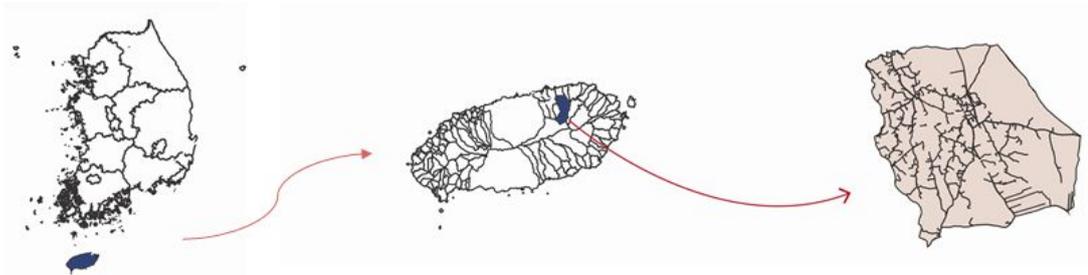
연구자	연구내용	주요요인
이재준·이상문 (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마을지도자의 선도, 주민의 원만한 관계, 마을공동 협의체,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산 활동, 마을 내 발전계획, 소득증대 프로그램,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초지자체 각종 마을 지원사업, 관련전문가 지원 및 네트워크
한국지방행정 연구원(2007)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추진 리더 및 조직의 확립,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적 절한 관여, 행정의 지원
이영아(2008)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신뢰구축, 지역현안과의 일체화, 사회적 성취감
유창복(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적합한 소통 문화, 마을활동가 역할, 자원조달의 자립성,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화, 다수결보다는 전원합의를 원칙
송영민(2010)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이익창출,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광사업 운영능력
김동기(2011)	비도시 지역 재생의 성공요인 분석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요인(지도자리더십,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사업 활성화), 외부요인(재원의 확보, 연계사업 유지, 외부네트워크), 입지요인(접근성, 잠재고객, 지역자원 활용)
김영주(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사회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신예철(2012)	지역만들기에서 지역공동체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태도, 자율적 참여, 지속적 참여, 개인/참여/관계
이정원(2013)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연구	지역의 정체성, 참여의 위계, 협동적 체계

제3장 대상지의 이해와 분석의 틀

1절. 선흘1리 램사르시범마을의 이해

1. 선흘1리 램사르시범마을의 현황

선흘1리는 제주 동부지역 중산간 마을로 해발고도 200m 이하의 평탄한 지형으로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속한다. 총 면적은 19,688,000㎡에 이르며 인구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275세대 673명이 거주하고 있다. 선흘1리는 남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지대로 유명한 선흘 곳자왓과 제주43사건 당시 집단촌인 낙선동성이 있어 제주의 자연생태와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그림 3-1] 선흘1리 램사르시범마을 위치

2. 선흘1리의 램사르시범마을의 자원

1) 역사와 문화

선흘1리의 옛 이름은 ‘선흘’ 이고, ‘흘’ 은 ‘숲·수풀’ 의 뜻으로 쓰이는 제주도 곳자왓 숲이 잘 보전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 선흘리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박찬식, 2010). 대부분의 제주의 마을이 그러하듯 선흘1리는 4·3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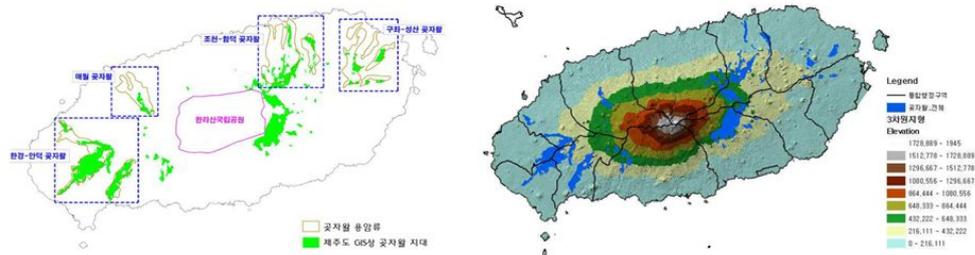
과 관련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적으로 4·3성(낙선동성)과 주민들이 은신했던 선흘곶의 자연동굴(목시물굴, 도틀굴 등) 존재한다. 그 밖에 마을에 남성들이 주관하는 유교식 제의인 포제와 무속식 제의인 당굿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마을 공동체 신앙이 공존하며, 지금까지도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2) 선흘1리의 생태환경

선흘1리에 위치한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 불리는 동백동산은 4개의 곶자왈 중 선흘곶자왈 선흘에 자리하고 있다. 곶자왈은 고유 제주어로서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나, 숲을 뜻하는 ‘곶’ 과 돌과 자갈들이 모인 곶을 뜻하는 ‘자왈’ 이라는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제주어사전(濟州語辭典)에 따르면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헝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곶으로 정의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9). 과거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던 곶자왈은 1990년대 이래 곶자왈의 개발과 지하수 보전 문제가 지역 사회의 논쟁거리가 되고, 자연환경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곶자왈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곶자왈탐사대 활동(제민일보: 2002~2004), (사)곶자왈사람들 창립(2005) 등 곶자왈에 대한 관심이 지하수분야 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생태 분야로 까지 확대되면서 곶자왈의 학술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박준범, 2014). 또한 곶자왈은 독특한 화산지형으로서의 지형·지질학적인 가치, 특유한 난대·온대림의 생태계로 구성되어 한라산과 해안지역을 잇는 생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산간 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문지리학적 가치를 지닌다(Suh, 2012).

선흘곶자왈은 제주도의 대표적 곶자왈 지역으로 크게 조천-함덕 곶자왈 지대에 속해 있으며,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분포하는 곳이다. 이곳은 거문오름에서 북오름을 지나 선흘곶까지 약7km에 걸쳐 이어진 곶자왈 지대를 이루고 있고, 약100만년 전에서 3만년 전까지 제주

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용암대지, 용암동굴, 오름, 꽃자왈 암설사태 층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선홍1리 일대는 선홍곶 혹은 동백동산 이라고 불리는 화산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규모 화산지형이 위치한다.¹⁾ 또한,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울창한 산림지대이며 선홍1리의 자연자원인 동백동산 습지는 1986년 도지정문화재로 채택되었고, 2010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어 2011년 랍사르습지로 지정되어 그 생태·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림 3-2] Arc Gis를 이용한 3차원 지형으로 본 꽃자왈 지역분포.(김태일, 2012)

그 외에도 동백동산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고,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 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상록수 65종 중 31종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동식물들이 다량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제주에만 있는 제주고사리삼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2006).

1) 제주특별자치도, 2010,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홍1리 p.135-137

2절. 선홍1리 마을만들기의 과정

1.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 만들기 활동

제주지역의 마을들은 자체의 고유한 문화자원(마을 역사, 마을의 수호신, 마을 인물, 마을의 먹거리, 마을유적 등)이 풍부하므로(제주발전연구원, 2014), 마을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가 가능하다. 선홍1리 또한 동백동산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동백동산의 먼물깎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선홍1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2010년부터 6년간 주민역량강화사업(2010-2013년), 세계자연유산권역사업(2013~현재), 람사르시범마을 시범사업(2013-2014년), 전국 12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2014-2016년), 주차장 및 습지센터 건립(2013-2014년), 에코촌(2015~조성 중)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3-3] 추진협의체 회의 사진 (마을 내부자료 참고)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동백동산 습지가 람사르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부터이다. 2013년 람사르 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내에 마을주민, 이장, 전문가(음식, 생태관광, 마을만들기), 공무원등 18명으로 생태관광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었고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표 3-1] 추진협의체 구성 목록

마을주민	전문가	공무원	환경운동가	총계
6명	6명	5명	1명	18명

람사르시범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세계자연유산권역사업으로 체육관, 복지회관, 마을운동장 등 마을의 노후된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하였고, 환경부와 제주도의 지원으로 주차장과 습지센터를 건립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에코촌 조성사업이 착수되어 생태관광에서 필요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림 3-4] 람사르시범마을의 시설물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현황 (권역사업 보고서 참고)

2013년부터 1년간 람사르시범마을로 운영되었고, 2014년도부터 전국 12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지로 채택되면서 환경부로부터 연 1억원의 예산지원금이 마을 내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어지면서 질 높은 생태관광프로그램(다같이 놀자 동네한바퀴, 마을과 학교소통의 동백동산 탐방, 눈 내리고 동백 꽃 피다)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부녀회주관으로 향토음식체험(도토리수제비만들기)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의 자원보전활동(제주백서향 삼목, 제주고사리삼 복원, 동백동산 모니터링, 숲편지 제작, 선흘리 생명약속 제작), 주민역량교육, 주민참여유도활동(원탁회의, 찾아가는 간담회) 등도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선흘1리는 2012년부터 선흘곶 축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부녀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운영·계획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탁회의와 주민교육을 거쳐 생태관광을 통해 들어온 수익을 지역의 복지와 보전을 위해 환원하는 구조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중이다.



[그림 3-5] 선흘1리 람사르시범마을 운영프로그램
(동백동산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상사업보고서,2014 참고)

2.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활성화

선홍1리는 생태관광사업이 시작된 이후 선홍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2015년 마을 총 탐방객수는 26,000명으로 2014년 19000명보다 방문객이 5000명이 증가하였으며. 마을로 선진지 견학 및 연구로 방문한 인원이 총 4,649명으로 선홍1리가 외부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례로 알려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비지터센터를 운영하고 체험장 등을 운영하면서 총 142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났고 2010년 이전 마을에 존재하지 않던 식당(5개소)과 숙박시설(3개소), 카페(1개소)가 새로 생겨났으며, 젊은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인구의 71명(전체인구의 약 10%)이 전입하고 동시에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선홍분교의 학생 수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증가하기도 하였다. 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주민참여 또한 확대되었는데, 매회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원탁회의에 참여해 상향식 원탁토론의 벌여 마을의 중요한 의제를 결정했으며, 습지보호지역 이해도와 마을의 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95%이상의 주민이 ‘동백동산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선홍1리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에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고 대답해 마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2016년 3월 진행된 현장조사 및 주민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선홍1리에는 이주민의 유입이 거의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환경교육으로 특화된 선홍분교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4년 전까지 18명이었던 학생수가 28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국립습지센터, 2015, 습지사례집 ‘습지보호지역, 지역을 바꾸다 -동백동산습지 선홍1리를 중심으로-’ 재구성

3절.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즉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운영조직, 관광프로그램, 주민참여, 소득, 생태·역사문화, 관광시설과 같은 항목을 바탕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마을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분석방향의 설정

■ 인터뷰를 통한 활성화 요인 항목 적합성 확인

인터뷰의 목적은 1차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활성화 요인과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구성요소(마을 사업 조성, 거버넌스 체계, 생태환경, 경제, 역사문화자원, 주민교육, 시설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활성화 요인으로써 적합성을 확인받으려 하였다. 인터뷰는 방문면접의 방법으로 진행 하였으며 마을사업에 관여하며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이해당사자 9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016년 3월 2회에 걸쳐 1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의 구성요소에 대한 마을의 현황과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선홍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리더 8명과 1차 인터뷰 참여자 9명 총 17명을 중심으로 2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성화 요인으로써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마을의 리더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2차 인터뷰 순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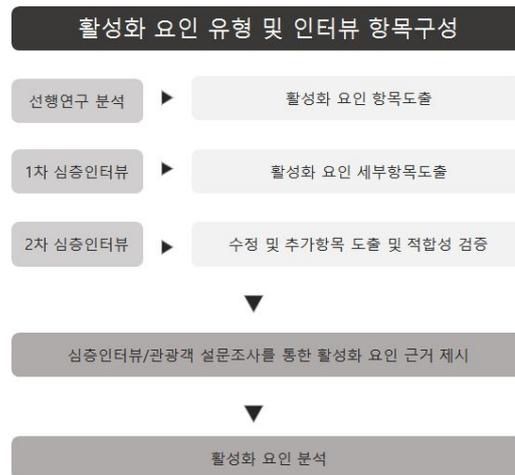
선행연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요인 구성항목을 제시한 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첫째, 구성항목에 대한 타당성 유무, 둘째, 타당하지 못한 요인에 대한 이유, 셋

제, 수정요청사항, 넷째, 활성화요인 추가사항 등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외 추가적인 질문은 기타사항으로 질문하였다.

1차적으로 마을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활성화 요인의 항목을 수정하였으며, 2차 인터뷰를 통하여 활성화 요인 항목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2. 분석의 틀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요인도출 및 분석’이라는 본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의 틀은 <그림 7>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과 사례분석, 이해당사자 인터뷰를 통해서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활성화 요인을 바탕으로 심층인터뷰 항목과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실제 마을만들기 참여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그림 3-6] 분석의 틀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요인의 최종 구성항목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생태마을만들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 요인을 크게 3가지(거버넌스, 마을의 자원, 경제)로 구분하였으며, 리더와 중간지원조직, 주민조직, 자원 보전·관리, 자원활용, 이익의 분배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뒤 심층인터뷰를 통해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2차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후 수정 및 추가된 최종 활성화 요인은 다음[표 4]와 같다.

[표 3-2]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요인 최종 구성항목

구분	항목	세부항목
거버넌스	리더와 주민협의체의 역할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이해당사자의 의견합의
	주민조직의 공동체기반 활동	주민조직 현황과 참여 원탁회의와 참여 프로그램 활동에 의한 주민인식변화
생태·문화자원	자원의 관리와 보전	자원의 보전·관리 방안 자원 보전을 위한 활동
	생태관광프로그램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
경제	이익분배의 형평성	생태관광 활동에 의한 마을의 이익
		형평성 있는 이익 분배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된 활성화 요인 항목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5가지 활성화 요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마을의 전반적 운영, 관광 프로그램, 자원보전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항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3-3]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구성항목

구분	항목	세부항목
마을사업	운영관리	조직체계, 홍보, 친절도, 시설현황
	자원관리	자원의 가치, 보전체계, 보전관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다양성, 주민참여, 체계적운영
	경제	수익창출의 다양성 및 가치
부가정보	기본정보	방문목적, 방문주기, 정보획득 경로, 인식
	만족도	생태관광체험, 향토음식체험, 재방문의사
	방문자특성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제4장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 공동체기반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요인분석

1절. 선홍1리의 리더와 주민협의체의 역할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

농촌관광에서 주민을 통솔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여 관광마을을 이끌어 가는 주체를 농촌관광 마을리더라 할 수 있다(오승영, 2010). 박진도(2005)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농촌관광 관련사업에서 마을리더의 지도력에 따라 해당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등 마을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선홍1리는 생태관광마을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이장과 마을 자원의 가치를 알아본 생태관광전문가의 주도적 역할이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을의 리더인 이장과 마을에 컨설턴트로 들어와 있던 생태관광전문가가 협력하여 동백동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활동들은 성공적인 생태관광마을 운영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할 때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동백동산 곳자왈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제주생태관광이 가치를 알아보고 이장님을 설득하여 동백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마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되죠.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있었고 고대표가 많이 기여했죠(마을 만들기 전문가)

생태관광은 2011년도부터 2월 1일부터 이장직을 인수 받고, 10일 지나니까 생태관광 교육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어요. 생태관광과 공정여행교육을 받았고, 그때 처음 고선

생님과 습지센터 이씨도 만났어요. 본격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한 것은 2012년도 임. 제주도 WCC개최했을 때 그때부터 자존심상해서 시작하게 됨. 오픈행사를 거문오름에서 했는데, 거기는 선홍2리임. 남의 동네 시골벽적한테 우리마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습지센터 결과보고 하러 올라간 자리에서 고제량 선생님과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을도 있다라는 것을 선홍1리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음. 일이 이렇게 커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

고제량쌤은 2011년 국립습지센터에서 하는 습지환경교육 컨설팅으로 들어왔고 주식회사 생태관광이 마을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장님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였고 2011년도부터 습지주간행사에 가서 생태관광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왔다고 하셨어요(협의체 사무장).

선홍1리는 2리에 밀려져있던 상황에서 이장님이 굉장이 노력을 많이 하셨죠 제주생태관광과 함께 많이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공론화 시키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했고, 실제로 제주생태관광이 거기에 공을 많이 드려서 제안을 많이 했고 마을사람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했죠(마을만들기 전문가1).

사업을 시작할때도 사업을 리더들이 시작해서 요청을 했고 사람들을 모아 활동을 시작했어요(협의체 사무장).

마을 리더와 전문가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현재 마을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을의 주민리더인 생태관광협의체 사무장을 영입하고 마을의 인재로 육성하였으며, 환경보전 중심의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시켜나갔다. 또한, 마을 내에서 성장한 젊은 리더는 주민과 외부전문가 및 활동가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참여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양산해 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3년도 생태관광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이장님이 오셔서 같이 일을 하자하셔서 싫다고 했었다, 가족도 반대 마을일이 말이 많고 오고가는 사람들 말이 많았는데 이장님이 젊은 사람이 없으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13년 7월부터 시작함. 이장님이 눈여겨보다가 고쌤이랑 해보자 해서 얼떨결에 시작하게 되었죠 (협의체 사무장).

문운숙(생태관광추진협의체 위원, 생태관광사무국 직원)씨는 베테랑이고 인재가 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이 있으니 한마디 한마디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역량을 키워서 마을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마을사람도 동의를 해요(청년회장).

문운숙 사무장과 같은 마을의 활동가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으로 하니까 젊은아이 열심히하는데 모른척하면 되겠냐 하면서 주민들이 활동하죠(마을만들기 전문가 1)

또한, 마을 리더와 활동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와 의존도가 눈에 띄게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리더들이 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자기희생을 보여주었으며, 마을의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역할을 기대이상으로 수행했음을 나타낸다.

제일중요한건 마을 지도자가 자기희생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냐인데 그게 굉장히 잘되었어요(마을만들기 전문가1).

고재량(마을 컨설팅트)씨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많이 도와줌. 마을사람들이 아무래도 고씨에게 의지를 많이 하죠(부녀회장).

마을에서 선출한 이장님은 잘하고 계시고 고 선생님은 참 열성적이시고 복덩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르습지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시켜주고 열성적으로 먼저 다가와서 주민들도 마음을 열었죠. 문운숙씨도 월급도 많지 않지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고 다리역할을 해주었죠. 주민이었기 때문에 연결고리역할을 충분히 해주었죠(마을주민6).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마을의 생태관광 시작의 동력은 세계자연산인 거문오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선흘2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있던 지도층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갈증과 동백동산이라는 가치를 찾아내어 자원을 중심으로 마을을 활성화 시키고자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주민을 대화와 교육을

통해 설득했던 생태관광전문가의 노력이라고 정리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젊은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과 성실하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온 점이 마을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역할

커뮤니티관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관광객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계를 맺고 있다. 기존 관광개발과는 달리 커뮤니티관광개발에서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간의 요구를 적절히 조율하지 않고는 관광개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힘들다. 따라서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의 적절한 조율은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게 되었다(홍종규, 2006).

마을 내 생태관광사업에 있어 거버넌스의 역할을 오재일(2004)은 거버넌스를 정부, 기업, NGO 등 사회 주요 행위자가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는 마을 네트워크 안에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해당사자들간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람사르시범마을 내 거버넌스인 추진협의체는 지역주민, 행정, 전문가, 환경운동가, 생태관광업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진협의체는 마을 내 발생하는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을 통해 공공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루고자 할 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마을의 주체는 지역주

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2개월에 1회씩 열리는 회의를 통하여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구성할 때 여행사 환경단체 전문가 행정가 주민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은 30%로 구성되어있어요. 생태관광이기 때문에 환경훼손문제를 짚어주는 의미로 환경단체가 있고, 여행기획이나 프로그램 기획 때문에 여행전문가도 들어와 있고, 행정업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행정기관이 들어와 있고, 숲이 산림청 환경부 교육부 소유가 여러 기관으로 되어있어서 환경부, 산림청이 들어와 있음. 각 분야별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요리전문가도 들어와서 음식을 개발할 때 조언을 해주고 여러 분야에서 들어와 있죠(마을주민1)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전문가, 주식회사생태관광, NGO단체, 마을주민, 지자체 등 여러분들이 모여서 생태관광의 운영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사가 있으면 진행을 어떻게 할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사례발표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마을주민2).

협의체에 민관전문가 합쳐진 협의체는 협동조합이 생기면 서포터가 되는 것이죠. 협의체는 논의구조, 협동조합은 사업단이 됨. 논의 구조는 항상 존재하면서 사업단을 도와주고 절제도 해줌. 협의체, 지역관리위원회 등 이름을 달리하지만 마을사업 뒤에 있어요.(생태관광전문가)

또한, 주민 심층인터뷰 결과 선홍 1리의 생태관광 추진협의체는 다른 지역의 유명무실한 지원조직과 다르게 마을 내에 깊숙이 관여하여 마을이 발전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 마을 내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의 자문을 맡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협의체라는 조직이 다양한사람들 주민, 행정, 기관, 전문가가 모이는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좋고 원칙은 좋은데 경험적으로 보면 성공한데가 많지 않아요(마을만들기 전문가2).

협의체 구성원인중 하나는 협의체가 생김으로써 마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

고 뺨 튀어서 원탁회의를 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주제를 막 주고 생각을 물어봐요 그런 와중에도 호응도 있고 생각도 많이 이야기 하죠. 내가 보기엔 다른 마을도 가보고 그러면 우리가 좀 낫지 않나 생각해요. (청년회장).

추진협의체에서는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어울리면서 설득했어요.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거라는 것을 많이 심어줬구요, 주민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었죠(마을주민6).

마을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의식있는 마을 추진협의체의 활동과 참여는 랍사르시범마을이 생태관광지로서의 틀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마을의 가치를 발견하고 끌어내어 지역의 생태관광활성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은 생태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을이 발전하는데 요소로 작용되었음을 시사한다.

3. 이해당사자 의견합의 과정

이지선(2010)은 공동체기반 관광에서는 기존 개발과는 달리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관광 사업을 이루어 내기 힘들며,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경쟁요소이며 커뮤니티 관광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Gray(1989)는 복잡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마을의 생태관광추진협의체 회의에서도 각각의 의견이 상이하여 작은 마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의견충돌은 하나의 공동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협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흥1리에는 7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마을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충돌이 발생하며, 마을내부에 크고 작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하고 있었다.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생겼지만 원탁회의를 거치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보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공동목표 아래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마을의 보전하자는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되었고, 마을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타나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을 갈등이 심해요. 갈등을 잠재우면서 공동목표를 세우고 있음. 지난번 원탁회의 때 부터는 한자리에 다 오세요. 700명이 사는 곳인데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 끌어가요. 중심잡는 사람들은 항상 바꾸지만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함. 원탁회의에 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균형이 맞춰지죠. 반대의견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 면 수긍하고 인정해요.(생태관광전문가)

주민참여와 보전을 이끌어 가는데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협동조합 목표세우기 2015년 11월4일에 110명정도가 나와서 원탁회의해요. 이장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기위해서는 배당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져야해요. 동백동산의 보전과 주민행복은 누구나 공감함. 협동조합을 어떤방법을 할까? 두테이블에서 배당없는 것으로 하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자. 이장님파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함. 주민참여와 보전을 이루어 가기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게 해야 해요.(생태관광전문가)

회의때는 우리끼리 막 싸움. 그래서 되겠다고 싸우고 딱 끝나고 나면 소주도 먹고 해 요. 협의체 회의 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도 함. 의견이 각자 있으니까. 싸우는 이 유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니가 맞다 내가 맞다가 아니고 어떤 것 이 더 좋을지에 대한 논쟁임. 목적이 같기 때문이죠(청년회장).

의견조율은 대체로 잘 되어지고 있어요. 시설물설치나, 방제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안이 도출이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큰 마찰은 없죠(마을주민2).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 만들기 활동과정에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관계에 놓여있으며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교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2절. 람사르시범마을 주민조직의 공동체기반 활동

1. 주민조직 현황과 참여 과정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과의 공동학습과 체험, 주민들 간의 소통과 관계성 회복, 공동관심사 형성 등의 과정이고, 이 과정은 주민참여를 통해 성공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자 과정이 마을 만들기이므로 마을 만들기의 본질적인 속성은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김경화 외, 2015).

선홍 1리의 주민조직은 특정계층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의 행위자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사업시작단계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마을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의 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활동과 교육, 그리고 주민이 쉽게 마을생태관광 사업에 접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커뮤니티의 원심력을 높이고 참여비율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의 장이 형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여성회, 향우회가 있음. 여기는 여성회가 활동을 오히려 많이 해요. 거의 어머니회임. 청년회는 바빠서 모이기 힘들. 부녀회와 노인회는 단합이 잘되죠(협의체 사무장).

주민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 자만했음. 솔직히 말해서 내 얼굴보고 울 줄 알았는데 개발위원,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만 와있었어요. 오라고 해서 오라는건 아니었구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오는구나 해서 청년회는 다이는 동생 오빠들이라 모일 때 찾아가서 얼굴을 트고 이야기를 했죠. 부녀회는 일박이일 프로그램을 짜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마을의 중심은 부녀회이기 때문에 강사도한번 불러서 초빙도 해서 교육했음. 향우회도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때 오픈하고 이런 것을 발표하다 보니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가서 마을에 회의하니까 가라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소통이 시작되었죠(협의회 사무장).

주민교육은 방송이랑 현수막을 걸고 간담회를 열었음. 처음엔 20~30명 정도 왔고 처음에는 생태관광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뭘 하는 것도 몰라서 참여율이 낮았죠. 그래서 찾아가는 간담회로 해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향우회 모임에 찾아가서 생태관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하자고 설득하고, 부녀회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해주십사 하고, 음식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전문가도 데려올테니 하자고 하고 단체마다 이야기 하니 노인회에서도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노인회에도 찾아갔어요. 2011~12년, 1~2년은 전체적인 것이 안되니 분야별로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했음. 그 이후에는 원탁회의를 하니 관심도가 높아져 참여율이 높아졌죠. (마을주민1)

원탁회의 홍보는 일일이 집집마다 초대장 안내장을 보냄. 작은 사업은 하지 않고 원탁회의나 큰 것들을 일일이 알리고 방송으로 하고, 초대장을 못 보내는 사업의 경우 방송을 통해 이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 방송을 하고, 주민교육이나 주민프로그램(그림동화책)같은 것은 현수막을 걸고 방송을 통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마을주민1)

현재 선홍 1리는 공동체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발적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마을 생태관광사업단에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람사르시범마을 또한 다른 마을과 같이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녀회와 노인회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청년회는 선홍 1리가 아닌 외지에 거

주하고 있는 인원도 포함되어, 마을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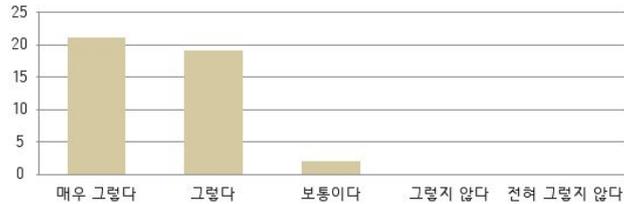
마을프로그램과 습지조사할 때 노인회에서 이야기 잘 해주심. 돌아다니진 못하기 때문에 인터뷰로 스토리를 이야기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올해는 습지 책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성회에서는 마을 작은학교 살리기를 주제로 가지고 있으며 호응도가 좋아요. 마을의 원탁회의 할때도 많이 참여해주고 의견도 나눠주고 심부름도 해요. 작목반이라고 마을에 예술인들이 조금 있는데 와서 어르신들 도와주시기도 하죠 (협의체 사무장).

마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만들기도 하고 친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마을주민이 요청해요 (생태관광전문가).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마을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라는 항목에 50%(21명)이 ‘매우 그렇다’, 45%(19명)가 ‘그렇다’, 5%(2명)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방문객들에 대해 주민들이 친절하다’ 라는 항목에 86%(36명)가 ‘매우 그렇다’, 14%(6명)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홍리 람사르시범마을은 주민조직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주민의 친절도 관련 응답



[그림 4-2] 주민조직체계 관련 응답

또한, 지역민들 스스로 주민 참여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이러한 일련의 주민참여 과정들을 통해 마을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하고가 마을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부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연보전이나 동백동산을 활용한 것에 대한 목적이 같음. 목적이 하나여서 그것 때문에 더 잘되는 것 같음. 그리고 동백동산이 주민들의 삶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 주민들이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71년도에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여기서 물 길러다 먹었어요. 식수 빨래도 하러왔죠. 향아리에 물뜨러 새벽에 왔었음. 동백동산에 대한 추억도 많음. 목욕했던 얘기 소물 먹었던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4,3에 관한 얘기 숨어서 지냈던 이야기가 다 동백동산에 들어있음 숲을 때어서 음식이랑 바꿨던 이야기 농기구 만들었던 이야기 다들 동백동산 안에서의 이야기죠.(마을주민1)

관주도에서 주민주도로 해보았다는 것, 물론 고선생님의 헌신도 있었지만 주민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지역주민이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마을만들기 전문가2)

원탁회의는 선홍1리 생태관광마을의 지역주민에 기반 한 의사결정구조이다. 인터뷰를 통해 원탁회의는 마을의 공동의 문제나 마을생태관광사업 현안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며,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역주민이 배재된 채 전문가나 리더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관행과 반대되는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의사결정 참여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니 우리주민 중심으로 원탁회의가 이루어져요(청년회장).

전문가 교육 보다는 워크숍 형태인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형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마을만들기 전문가2).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원탁회의는 강제성도 없어서 몇 번을 하던 상관없어요.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재있으니까 얽매이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 다 받아주려고 하고있죠. 10명이 있을 수 있는 원탁을 만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해요. 조장이 하는 이야기를 다 적죠. 다시 내용을 수정하고 빼기도 함. 조마다 조장을 뽑아서 회의가 이루어짐. 연관되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 내서 10명이면 10마디를 하면 그 중에 괜찮다 하면 적고, 다 괜찮다고 정리된 몇가지 내용을 앞에 나가서 조별로 또 발표해요. 보편적인 생각 외에 재있는 내용이 많이 나옴. 사람들이 다 달라서 의견과 생각이 다름. 신기한 의견도 많이 나와요. (청년회장)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의견이 다른 주민들 간에 마찰을 줄이고 지역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물음 형성하여 발전적인 마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을 내부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원탁회의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정과정의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통해서 마을의 원칙 규약 프로그램등을 정하는 것은 선도적이죠(마을만들기 전문가2).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아주 효율적이예요. 끼리끼리 앉아서 여담삼아 하는 얘기가 의견으로 표출됨. 시간이 걸려도 의견들이 다양해서 가장 현명함. 불만도 많이 없음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원탁회의 작년부터 처음 접해서 해봄 총회랑은 성격이 또 다른 제안은 협의체에서 만들어서 해요. 마을에서는 못함. 총회 회의하면 목소리 센 사람만 말하는데 원탁회의는 모든의견들이 수면위로 다 올라옴 그래서 만들었어요.(마을이장)

마을 에코촌에 관한 상세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지을거며 시설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가 될 듯.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모인다고 하긴 그렇지만 원탁회의 할 때 마다 생각하지만 어디서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옴. 선흥리 인구가 700명쯤 되는데 항상 100명 이상은 옴. 제일 많이 왔을 때는 150명정도 옴. 아주 연령층 높은 분은 왔다갔다 하기가 번거로우니 안 오시고. 100명 정도가 축이 되고 마을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뭐하는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청년회장).

위의 분석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향상은 마을을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임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마을의 지속가능성과 가치증대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원탁회의와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나영은(1996)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하여 역량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동기화와 자존감의 회복 등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독립심이나 자율성이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생기는 결과라고 할 때 개인적 차원의 역량강화는 집단적 사회적 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선흥1리는 2011년 습지역량강화 사업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기

에는 주민조직별로 직접 찾아가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참여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 역량강화교육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개인적 변화로는 자립심, 존재감, 권리의식들을 갖게 하였으며, 관계적 변화로는 마을내 공동체와 민주적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을 습득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마을살리기 교육은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따로해요. 총회 아니면 모일 수 없죠. 단체별로 나눠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음.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자에 대한 교육이에요.(부녀회장)

지금은 교육을 하고있진 않지만 친환경교육쪽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하고있어요 그래야 람사르시범마을로 등록이되면 마크를 받기위해 친환경교육이 필요해요(협의체 사무장).

마을만들기 교육은 권역협의체에서도하고 생태관광협의체에서하고 거의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 졌음. 선진지교육도 가요. 주민들 위주로 마을주민들기 선진지견학갔음. 마을에 안갔던 사람은 별로 없음. 계속 돌아가면서 가요. 나이드신 분들만 사업관련해서 못갔 다왔고 마을 젊은 층(70대)이 많이 다녀요.(마을이장)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하고 공부를 해서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받아요(마을주민1)

개개인 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았고, 원탁회의 하는 것이 산 교육이라 생각함. 많이 생각하게해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됨. 자연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교육 같아요.(청년회장)

역량강화 교육이나 환경교육도 주민의식을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 해요(마을주민2)

현재 마을 내에는 마을의 주민조직체가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부녀회는 정기적으로 향토음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회는 마을 축제의 음식체험 및 사업단 생태관광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선홍분교 학생은

꼬마해설사 프로그램, 청년회는 ‘동백 꽃 피다’ 라는 겨울 정기 프로그램에서 캠핑장프로그램 관리를 맡아서 진행하며 마을 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스로 운영할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마을 관광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체험은 부녀회가 맡아서 해요. 청년회 역할은 아직 생기지 않았고 논의될 예정. 청년회는 에코촌(생태숙소)운영 프로그램 운영이나 만들지만 현재 역량은 안됨. 하겠다고 하면 교육도 시키고 역량도 환경의식도 높이고 높여야하죠. (생태관광전문가)

부녀회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인회에서는 역할을 주면 하겠다고 해서 농기구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농기구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죠. 바구니를 만드는 것 등 그것을 해보려고 하고있죠. 크게 노인들이 역할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못하니까 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빙떡체험을 하게하는 작은 것을 준비하고 있음. 청년회에서는 아직까지 큰 역할은 없는데 앞으로 고민하고 있음. 환경정비에 대한 참여를 많이해요. 청소할 때나 방역이라 던지 도로변 청소를 청년회에서 많이 해요. 야영장을 예전에는 장례식장으로 많이 해서 쓰고 했고 작년에 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야영장으로 쓰면 안되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프로그램이랑 연계시켜서 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음어요. 여름에 캠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3년째 했는데 참여율이 높아서 캠핑 프로그램을 하면 될 것 같아요(마을주민1).

올해 어르신 생태해설사 6월말부터 4명을 시작했어요. 자연환경해설사분들이 나가면 소수 분들이 와서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아쉬워하는 사람 대상으로 어르신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주시위해 생태해설사 4명만 전문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8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죠(협의체 사무장).

마을운동장을 청년회에 달라고 이장님께 이야기했어요. 야영장을 운영하여 터를 빌려주고 싶어요. 마을운동장에 건물이 있음. 운동장 반대편으로 서쪽으로 보면 건물과 야외화장실이 있어요. 6년 청년회장 하면서 넘겨 줬는데 받아서 7년째 하고 있는데 2년에 한번 청년회주체로 마을행사를 하고 3번 하였죠. 그 친구도 했고, 이번에 다시 해야해요. 야영장 운영은 계획만 있음. 이장님에게 우리가 맡을테니 지원금을 달라고 했어요. 샤워실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청년회장).

꼬마해설사프로그램을 했는데 선흥분교에서 4,5,6학년들 꼬마해설사 교육을 받고 싶다

고 생태관광쪽으로 문의가 와서 2학기 때에는 우리가 꼬매해설을 하는데 유치원생들이 오면 해설해드리겠다고 해서 정규수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화요일마다 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하다보니 야외학습장이 필요해서 5월4일에 주민들이랑 해서 만들었죠(협의체 사무장).

주민조직이 자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므로, 역량을 키우기까지 노력과 시간투자가 필수 불가결 하지만 상대적으로 참여형태의 프로그램은 부담이 적고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율이 높은 모습을 나타낸다. 주민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영위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생태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년에 그림동화책 9분이 했는데 책이 나왔어요.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시간이어서 할머니들이 불평이 있었는데 한달쯤 지나니 학교 오는 기분이라고 재밌다고 하고 학교오는 기분이라고 책가방사달라고 해서 사드리기도 해요. 학교도 못 다닌 분도 계신데 학교를 다시다니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12월말인가 나왔는데 자체분이 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아버지 책을 10권 사갔어요. 자부심이 커보임. 어떤분은 4.3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동화책으로 풀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예전 기억들을 다 토해내도록 함. 어떤 날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이 된다고 했어요. 프로그램 하나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음. 글로 표현하고 살았던 기억을 이야기 할 때 울컥하기도 하죠. (마을주민1)

주민 습지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랑 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 듣고 2차적으로 다시 찾아가서 학생들 습지조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가서 서식하는 식물 동물을 다 적어서 조사하고 하고 있음. 마을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있음. 습지탐형대를 만들어서 생태교육이 되죠. (마을주민1)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마을의 주민은 마을의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참여자 또는 주체자의 형태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을활동

참여가 지역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3. 지역공동체 활동에 의한 주민의 인식변화

여관현(2013)은 마을만들기의 관점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마을만들기를 통해 개선되는 공간적,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공동체, 작지만 소소한 마을주민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마을이 변화해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들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마을 만들기를 통하여 마을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고, 마을의 공동체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하였다.

지역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주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본 결과 선홍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관광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마을 생태관광 활동과 지역자원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마을 자원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에 사는 주민의 10%를 설문조사함 80명 정도. 습지보전지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가 90프로가 넘음. 마을이 달라진걸 알고 있음, 현수막 등을 통해서 마을활동이 눈에 보여져요, 또한 주민들이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대답함. 주민역량강화는 되었음. 이미 의식이 높아졌어요.(생태관광전문가)

습지사례집이 나왔어요. 그때 주민들의 인식조사도 해봄. 설문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음. 습지로 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건 90%넘게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에 다들 좋게 생각하고 있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었는데 좋게 생각함. 싫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분인가 나옴. 주민의 10% 정도 설문을 받았어요. (마을주민1)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지속적인 생태관광협의체가 홍보를 통해 주민 교육과 프로그

램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과 생태관광에 대해서 지식을 넓히고 중요성을 각인시킨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각종 환경교육과 주민교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마을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과거부터 마을과 함께 공존해왔던 마을 숲인 동백동산에 대한 애착과 보전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면서 주민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생태관광을 대하는 태도와 참여율 또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꽃자왈이 뭐고 동백동산이 뭔지 몰랐지, 처음엔 호응도 기대도 안했는데 센터도 생각하고 교육도 해서 주민분들이 동백동산 람사르습지를 알게 되었지(마을주민5).

놀던 터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습지라는게 일반 물탕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나중에 리더나 환경단체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마을주민에게 인식을 잘 시켜서 잘되었던 것 같아요(마을주민6).

동백동산걷기동호회가 생겨서 선을 동호회가 있어. 1시간동안 걸려 예전에는 몰랐는데 걷다보니 여기서사람들도 걸어보니까 좋은거야. 보다보니 보존해야겠다 느끼는 것이었지(마을주민5).

마을주민들 참여율이 높고 의식수준이 높아요. 동백동산을 매개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이야기 거리가 있으니까 만날 기회도 많아 저서 아마 선을 마을에는 진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지 않지만 그런 것 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마을주민 2)

뉴스에서 동백동산에 많이 접하고, 2013년도에 협의체가 생겨나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마을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나보다 마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청년회장).

주민활동의 결과 형성된 주민의식은 마을의 회의과정에서 발현되었는데, 마을에서 현안을 가지고 원탁회의가 진행될 때 주민들은 마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역의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공론화된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선진화된 회의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탁회의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추진협의체에서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 줬어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렇게 원탁회의가 활성화 된 것 같아요(마을주민6).

원탁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데 목소리큰사람은 있지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공동에 목표를 위해 수긍해요. 회의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마을만들기 전문가1).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통해 자원을 어떻게 운영해갈지 마을 주민 간 그 인식의 차이를 많이 좁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마을만들기 전문가2)

마을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참여이며, 또한 참여를 통해 마을에 던져지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며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활성화는 주민의 활동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3절. 랍사르시범마을 자원의 관리와 보전

1. 자원의 가치공유와 관리방안

보전가치란 자원을 이용하는 것 이외의 것에 사람들이 갖는 인식하에 비롯되며, 문화자원이나 아름다운 경관 등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 또는 효용. 즉, 자원의 보존과 존재에 대해 느끼는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김사현, 2003).

이혜은(2005)은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일반인들에 의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국민 누구나 한마음으로 우리의 자원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관리해야 하는 문화적 사고와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강정효(2008)는 보전한다 함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 아니고 생태계를 선용하여 그 가치를 증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제주도의 마을은 생태자원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선홍 1리의 지역주민들은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하고 마을의 공동목표로 설정하여 자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목표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선홍1리가 생태관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중 선도적임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제주도는 웬만하면 자원이 하나씩 있는데 그 속에서 자원에 대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선홍리가 다른마을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모습이 뛰어나죠(마을만들기 전문가2).

제주도는 마을마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선홍1리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없음 (마을만들기 전문가1).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죠, 이것은 워크숍 형태인 원탁회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마을의 자산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마을만들기 전문가2)

원탁회의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데는 그것으로 전기 값을 아끼고 하는데, 주민들이 소리가 너무 커서 생태자원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시골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해요 그때 이 양반들은 수준 이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모범이 되는 마을이죠(마을만들기 전문가1).

선흘리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이 동백동산이라는 마을 숲의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은 주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확고한 의식이 있음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동백동산전체를 전부다 보존해야함. 풍력발전기 때문에 야생의 새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음(마을주민3).

이제 동백동산 훼손을 하면 안되고 보존해야지, 그러면서 마을이 커가는거고... 대대손손 보존해야지(마을주민5).

동백동산내에 시설물 설치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설자체가 숲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훼손이 될 것임(마을주민7).

또한 당장에 개발에 의한 이익보다는 지역의 자산을 보전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설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많이 오면 경제수준이 높아져서 개발하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돈이 적더라도 오래갈 수 있게끔.. 보존시키면서 오래가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선흘리 보존만 잘되면 나중에 땅값이 제일 높아질 것. 그때 되면 오히려 보존했던 가치가 살아날 것임(마을이장).

요즘 관광객들은 자연을 느끼고 힐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한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음.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라도 바람직하고 계속 유지발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함. 동백동산이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오히려 관광객이 와서 머물면서 알려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숲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놓아 두는게 좋은게 아닐까 생각함. 좋다고 많이 알려지는 것 보다는 훼손이 안되게끔 있는 그대로가 좋음(마을주민 2).

보존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의 전통성을 지키고 생태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홍1리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마을의 자연유산에 대한 확고한 보존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백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용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탐방객 인원을 제한하는 총량제나 예약제를 실행하고자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적 문제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규제가 있어야함. 거문오름도 교육받을 때 일일탐방 몇 명 일주일에 몇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출입이 한쪽으로만 되면 할 수 있는데 출입구가 많아서 관리가 어려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인원수 제한이 있으면 좋겠음(부녀회장).

지금은 동백동산내에 데크나 물질을 넣지말자는 것이 사람들 생각임. 소로로 운영되어도 사람들이 만족하고, 자연이라는 것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맞춰야 하는 것. 지금 방문자수가 2만 5천명이고 내년이면 3만이 넘을 것 같은데. 적정수용력을 측정하고 그것을 통해 총량제나 예약제를 통해 인원수를 한정짓고 싶음. 그 정도로 운영되면 데크와 같은 것들은 필요 없음(생태관광 전문가).

관광객이 2014년 1만 9천 2015년 2만 3천명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1월 2144명 2월 2150명 올해 예상으로는 2만 7천명 정도로 추정함. 총량제나 예약제 도입이 필요함(지역주민1)

마을주민 중 일부는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만들어 동백동산 유지 및 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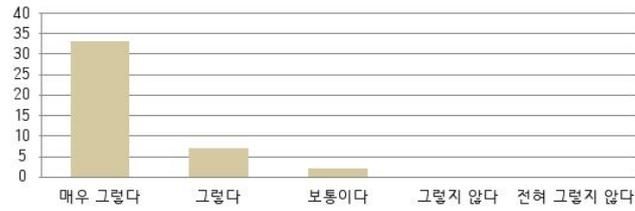
지역의 수익을 개인의 혜택이 아닌 마을을 위해 환원하고 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높은 주민의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나 산림청의 지원이 끊기면 자립해야하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요. 그것이 다시 동백동산의 유지하거나 보존하는데 재투자가 되니까 좋을 거예요..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존의 수단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마을주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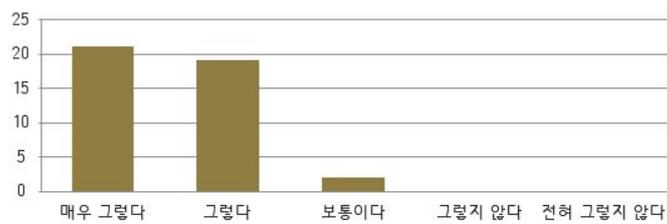
선홍 1리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마을 자원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동백동산 습지는 생태적 가치가 있다’ 라는 항목에 86%(36명)가 ‘매우 그렇다’, 14%(6명)가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동백동산의 꽃자왈 숲은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다’ 라는 항목에 78%(33명)가 ‘매우 그렇다’, 17%(7명)가 ‘그렇다’, 5%(2명)가 ‘보통이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 라는 항목에는 50%(21명)가 ‘매우 그렇다’, 36%(15명)가 ‘그렇다’, 14%(6명)가 ‘보통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선홍 1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마을의 자원이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역사·문화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3] 동백동산 습지의 생태적 가치 관련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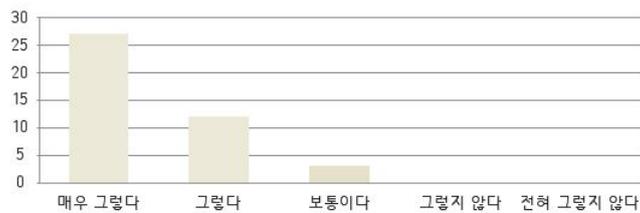


[그림 4-4] 동백동산 꽃자왈의 생태적 가치 관련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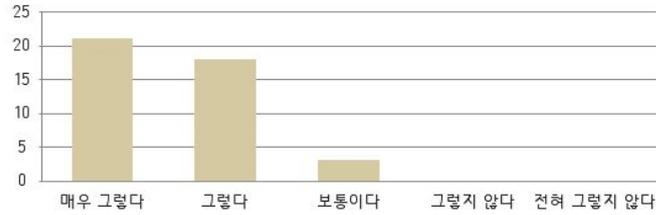


[그림 4-5] 마을자원의 역사·문화적 가치 관련 응답

또한 ‘자원보전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항목에 64%(27명)가 ‘매우 그렇다’, 29%(12명)가 ‘그렇다’, 7%(3명)가 ‘보통이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자원의 보존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라는 항목에 50%(21명)가 ‘매우 그렇다’, 43%(18명)가 ‘그렇다’, 7%(3명)가 ‘보통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 관광객들은 지역을 방문한 후 마을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보전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을 보존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6] 자원보전중심의 운영 관련 응답



[그림 4-7] 자원의 보존체계 관련 응답

설문조사와 마을의 이해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자원의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으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마을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랍사르시범마을의 자원 보전을 위한 활동

선흘1리 랍사르시범마을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부에서 꽃자왈을 보호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그것을 시작으로 지역의 보존의식이 높아졌으며, 마을이 유명해져 관광객이 증가하자 이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스스로가 몇가지 원칙으로 정하여 주민현장인 ‘선흘리 생명약속’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마을주민과 방문객들의 마을 자원을 지키기 위한 규약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생태관광사무국과 주민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습지조사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일환으로 외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습지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에 숲편지 제작, 고사리삼 복원, 제주 백서향 삼목 등 다양한 보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화 된 규제는 없고, 원탁회의를 통해 탐방객들이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선흥리 생명 약속을 만들어서 붙여 놓았어요. 리사무소 비지터센터 입구에 붙여놓음. 마을에서는 방문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문객들은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을주민1)

2013년 주민들과 모니터링을 같이 해보자 주민들에게 가치를 알려주고자 습지조사단 8명을 구성해서 야장을 주고 고사리삼에 대한 이야기도 해줌. 우리동네 자량이 뽕우파라는 주제로 할 때 어르신들입에서 고사리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 습지조사는 2015년에 시작했으며 기록남기고 식생을 조사했어요. 청소년습지조사단 중학생대상으로 외부 친구들에게 10명 어르신들이 다니는 습지를 가서 용존산소량을 측정하고 식생조사하고 하고있음. 식생을 모니터링 하고 기입하는 숲편지는 매분기 자연환경 해설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협의체 사무장).

마을 내에 있는 숲치고는 보존이 잘되고 있는 편이죠. 예전에는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다시 관리해보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주민과 생태관광사업단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환경운동가).

또한 생태관광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개발되고 훼손되어가는 지역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관광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제주개발속도를 보면 보전지역은 섬으로 남을 거예요 선흥도 아직은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없죠.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맞게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가 있는데 주민이 잡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자연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켜질 것인가. 보존된 자연이 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냐가 이 두가지가 공존되어야함. 그 도구가 생태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관광 전문가)

생태관광 자원의 활용은 활용할 대상이 잘 보전된 지역의 자원의 가치와 특성이기 때문에 보전이 전체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흥리의 경우 지역자원의 보전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지

역의 자연자원의 가치를 인지하고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마을 내 생태관광수칙이 정해져야 생태관광마을의 보전과 활성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절. 람사르시범마을 생태관광프로그램

1. 꽃자왈과 람사르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조중현(2012)는 권역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의 대표자원 또는 핵심자원을 도출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연생태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은 장소와 상품보다는 생태관광 내에서 공급되는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방식에 따라 또한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데, 선홍1리 생태관광프로그램 같은 경우 프로그램은 다양하진 않지만 마을 내에서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다양한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선홍 1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태자원과 음식, 사람을 활용하여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번개프로그램을 진행 했는데 5월이 되면 글꽃이 피는데 '글꽃엔딩'이라고 글꽃향을 맡으면서 4.3성터에서 동백동산까지 걸어오는 프로그램을 했고, '동네한바퀴' 8월 초에 애들과 함께 캠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년회랑 마을운동장에서 같이해요. 겨울에는 '동백 꽃 피다'를 운영하고 노래하시는 분,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며, 어르신들이 시 쓴 것을 읽으면서 동행해서 함께 걸어요.(협의체 사무장).

우리는 지금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200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가 결산임.

메뉴는 도토리 칼국수. 도토리반죽하고 육수해서 세팅하면 본인이 직접 만들. 이랑 기름 떡체험. 제주도에만 있는 건데 찹쌀 반죽한 것으로 설탕에 찍어먹는 것으로 하고 4계절 내내해요. 올해 200회 진행함 부녀회 한사람만 10~17회 정도하고, 체험은 15000원, 식사는 10000원, 체험시간은1시간 30분정도 걸림. 제작년 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중순부터 자리 잡혀서 올해는 자리를 잡았어요(부녀회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4.3사건, 숲가마터, 목시물굴, 도틀굴 그런데는 복원해서 프로그램에 이용했으면 좋겠음. 숲가마터 프로그램 활용 시 길을 만드는 것을 아니고 자연적으로 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하면 될 것. 거기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하려고 하면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을 듯해요(마을주민 2, 협의체 직원)

4.3. 생활유적을 세 개의 축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보다는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변형해서하면 가능해요(생태관광 전문가).

환경인증프로그램은 컨설팅을 문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연환경해설사와 사무국이 모여서 인증프로그램 겸 환경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협의체 사무장).

프로그램으로 자원을 활용할 때에도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관광프로그램계획을 추구하였으며 생태계의 보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훼손을 최소화하여 가장 필요한 것만 오픈시키는 형태로 개발했으면 해요. 의식있는 사람이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것 중심으로. 자연생태계

개발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생태관광프로그램)

시설물을 가져다 놓거나 바꾸는 것은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를 생태관광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산림청 토지에 석기문화 문화유적 발견된 곳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마을주민1).

마을만들기 전문가는 선홍리의 생태관광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을 지적하였는데, 마을 내에 포진되어있는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을이 있고 동백동산의 자원이 있고 거기만 활용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죠, 대표 테마자원만 활용하지 말고 동네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을 엮어서 마을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마을만들기 전문가2)

2. 생태관광프로그램의 활성화

심층인터뷰를 통해 선홍리 람사르시범마을 생태관광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역으로 찾아와 생태해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전문가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관광교육을 받은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 마을의 인적자원이 생성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좋은프로그램과 시스템 있으면 마을로 관광객이 찾아오죠(생태관광전문가)

습지센터는 많이 알려지고 체험도 많이 들어오고 만족도도 높아요. 가족, 단체, 회사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죠(생태관광 전문가)

전에는 내가 프로그램 운영, 계획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인적자원이 늘었어요,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도와주고 꼬마해설사들이 해설을 해주니까 일이 나는 기획하고 뒤에서 사진을 찍고 기획하는 것만 하니깐 일이 수월해졌어요. 인적자원이 조금씩 늘어가니까 저번에 '동백꽃 피다'도 어르신이 하나를 맡아주니 일하기가 수월해요. 욕심내지 않고 한분 한분 아카데미처럼 맡고 소소하게 같이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요(협의체 사무장).

또한, 마을의 생태관광 협의체 사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태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재 방문률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첫째날, 세계유산센터, 돌문화공원. 둘째날 섬에서 비양도 낚시, 셋째날 동백동산(도토리, 감귤체험), 넷째날 오름과 동문제례시장투어를 해요. 8가지 장소를 돌고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매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선홍1리의 도토리칼국수(향토음식)체험과 동백동산 체험은 1위 2위를 다들만큼 만족도가 높아요(생태관광 전문가).

사무국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해설을 듣는 사람들을 체험하면 100% 다시 연락이 와요. 마을을 느끼고 간 사람들을 다시 옴. 해설만 듣고간 분들은 지키고 길다고 하고 가지만 어르신 해설을 듣고 가지는 분들은 다시 찾아오고 올 때 손에 뽕 들고 와요(협의체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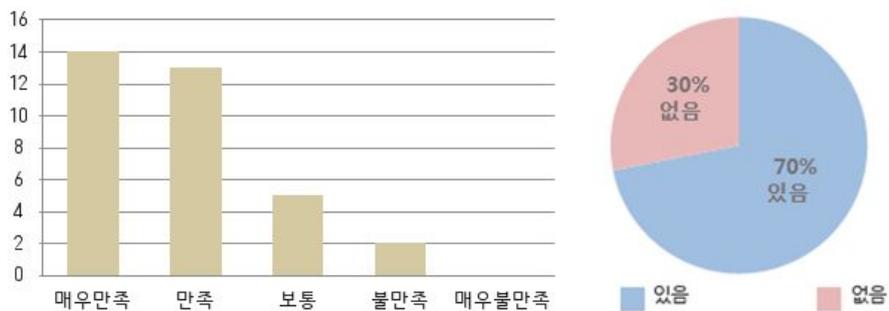
의식 없이 왔다가도 체험을 하고 가면 감동했다고 하고 가는 분들이 있음 생태관광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주민들과 교류하고 가야 마을생태관광의 가치를 느끼고 가요. 생태해설프로그램은 그냥 해설프로그램이고 적어도 생태관광을 체험하러 오는 분들은 마을과 교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협의체 사무장).

선홍 1리 랍사르시범마을에서 운영하는 생태프로그램에 참여한 42명의 관광객과 마을의 생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산책을 목적으로 동백동산에 방문한 방문객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태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는 57%(24명)가 '매우만족', 43%(18명)가 '만족' 이라고 대답하였으

며, 재방문 의사는 100%(42명)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에 일반 동백동산 방문객의 만족도는 41%(14명)가 ‘매우만족’, 38%(13명)가 ‘만족’, 15%(5명)가 ‘보통’, 6%(2명)가 ‘불만족’ 이라고 대답하였고,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70%(24명)가 ‘있다’, 30%(10명)가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선흘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이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지역주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이나 자원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생태관광의 매력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그림 4-8] 생태프로그램 참여대상자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관련응답



[그림 4-9] 일반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관련응답

선흘 1리는 마을의 가장 큰 자산인 동백동산을 활용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였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이 대·내외 적으로 알려져 이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방문객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문가 인터뷰로부터 지적된 생태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문화 자원의 낮은 활용도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파악된다.

5절. 랍사르시범마을 이익분배의 형평성

1. 생태관광활동을 통한 마을의 경제적 혜택

생태관광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 중 하나는 지역 경제적 효과로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익의 보장이 환경보전활동의 동기와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명제에 입각해서, 지역주민의 전통적 경제활동 및 사회구조의 심각한 변모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경제적 편익 및 생활복지를 도모하고, 소득 증대와 고용기회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문창현,2006).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편익의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관광의 지역경제적 효과는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김일상, 2007).

균형 있는 수익창출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마을의 핵심과제이다. 선흘1리는 생태관광사업 이후 환경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며, 마을의 소득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의 수익창출을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마을의 생태관광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 생태관광사업 후 주민들 고용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청년회장).

작년부터 동백동산 해설사로 주민이라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해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설하는 동안 자격을 갖추서 다음해에는 공식 자연환경해설자로 경쟁해서 입성했죠. 자연환경해설사 4명, 지질해설사 1명, 감시원2명 중 4명이 마을주민임 이정도 비율이면 적당하고 생각해요. (생태관광전문가)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의 수익에 대한 조사 결과,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부녀회가 체험비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재료인 도토리 가루를 지역주민이 직접 동백동산에서 채취하고 생산하여 부수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마을에서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마을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홍꽃 곳자왈 숲이 많아서 종가시나무 열매가 올해 같은경우는 바람에 태풍이 와서 도토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주민이 주워온 자기들이 가루를 내서 부녀회를 통해서 팜. 습자센터 체험장에서 하고 운영을 부녀회에서 함. 마을에서 나오는 도토리를 주민 것을 부녀회에서 사죠(부녀회장).

소득이 생긴 것은 2014년부터예요. 마을이 알음알음 홍보가 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수입이 늘었음. 체험수익은 부녀회가 일괄적으로 가져감 수익으로 이번에 중국여행도 가요(협의체 사무장).

생태관광 생기면서 체험이 생기면서 부녀회가 참여해 일당도 받아가고 일년동안 번 돈으로 걸로 중국여행 가는데 얼마나 좋아(마을주민5).

마을주민이 지역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홍보하면서 이익으로 돌아왔고 마을이 한 단계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보존하는 상태로 운영해야하지 않나 생각해요(마을주민 6).

인터뷰 결과 마을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마을에서 추구하는 생태관광의 방향인 보존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행정으로부터 지원이 종료된 후 마을의 수익구조를 통해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모색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보존이 된다는 것으로 자긍심을 얻을 수 있지만 더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관광객이 와서 일박을 해서 민박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면 경제적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문화 체험도.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해요.(마을주민2)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득이 있어야하며 정부지원이 끊겨도 소득이 있어야 마을이 운영 될 것이고, 보존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며, 자립을 위해서 소득을 어떻게 낼 것인지 찾아내야해. 지역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을주민7).

또한, 전문가들은 마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지만, 행정지원으로부터 마을의 경제적 독립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으며, 마을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원금을 프로그램이나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자발적인 마을기금을 운영해서라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나 열의들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선을 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환경운동가).

만약에 지원이 끊기게 되면 자립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죠. 기존의 시스템아래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힘들어요. 기존의 관광패턴과 경쟁해서 살아남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정한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환경운동가).

경제적인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점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변화 시키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욕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가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마을만들기 전문가)

선홍 1리는 생태관광사업을 통해 마을내부의 일자리와 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생태관광사업을 시작하기 이전보다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현재 지속가능한 마을의 생태관광 운영에 대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형평성 있는 이익분배를 위한 과정

관광개발에서 불확실한 수익모델, 수익 발생 및 이익에 대한 분배, 공동사업과 개별참여주체의 이익이 배치 될 경우 주민참여는 저조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정의 공동의 수익을 환경보전을 위한 수익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탁혜경, 2009).

기존의 생태관광에서 지역에 돌아오는 이익에 대한 배분은 지역에 생태관광을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선홍 1리는 현재 마을사업을 응용할 때 수익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수익의 배분이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라는 사업단을 만들어 마을이 자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이를 통해 마을 내 일자리를 창출과 소득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녀회에서 지금 이렇게 방문객들이 보면 카드를 사용해서하는데 부녀회 자체적으로 카드 승인하는 것이 없어서 생태 체험장에서 카

드를 해서 체험비를 수수료제하고 취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해야 하는데 어느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신청 하는 것도 힘들어서 협의체 것을 빌려 쓰고 있음. 협동조합이 되면 그런게 나아지지않을까 생각함, 협동조합을 하면 카드승인 받는 것도 수월하고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같이 젊은세대도 협동조합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마을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됨. 일단 협동조합이 생겨야 관철을 것 같아요(부녀회장).

협동조합이라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립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지금상태로 간다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 건물유지관리를 제외한 일반적인 관리운영은 마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마을이장).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여러 가지 농산품이나 가공품들이 많이 홍보가 되면 팔릴 수 있는 판로가 열리죠. 거의 친환경 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태관광과 친환경사업은 뭘 수 없음 기왕이면 자연에서 나오는 고사리, 도토리묵 가루, 굴이나 콩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음. 자기 손으로 제작한 물품도 내놓을 수 있고, 친환경 람사르시범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자체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고 싶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해요(마을주민2).

선홍리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배당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거쳐 왔다. 마을의 주민들은 원탁 회의를 통해 최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백동산의 보존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를 협동조합의 목표로 채택하였으며, 마을주민들도 대다수 동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동조합이 되면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긴 소득은 부녀회가 인건비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요. 다들 동의가 된 상태. 마을이기 때문에 수익을 분배할 때 이해를 하는 것이죠(협의체 사무장).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도 알아야 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안됨. 영리가 있으면 주민 복지로 돌아감 그것을 공유해야함. 모르는 사람은 출자했는데 배당을 줘야한다는 분이 있으니 알리고 그래도 이사업에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은 함께 하는 것으로 했어요. 의견을 많이 내고 그것을 토대로 조례를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기로 했죠(마을주민1).

마을 속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위주로 출자를 받아서 조합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 생태관광협동조합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마을주민2).

선홍1리의 마을 주민들은 자원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수익은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협동조합은 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근데 이걸 비영리야,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꺼리고 있어. 그런데 마을의 복지로 쓰기도 하는데, 동백동산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자하면 걱정이 없자나, 동백동산을 보존하자는 의미로 출자하려고 하고있어(마을주민5).

앞으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봐야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면 그것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수익이 들어와 인력을 운용해야하고 그 사람들이 감시자 역할도 하고 보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야하고 계속 이게 원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마을주민6).

인터뷰를 통해 선홍 1리에 주목할 점은 주민 스스로가 정한 수익의 배분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존재했지만 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하나의 공동목표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마을의 일련의 과정은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소통의 형태라고 판단되어졌다.

모든 수익은 마을수익으로 들어와서 마을어르신들 복지, 물리치료실 기금,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협동조합을 위한 2차 원탁회의 때 다시 이야기 했어요. 원탁회의 때 배당에 대해 엄청 치열했는데 일부 모아가는 추세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었고 배당하면서 싸울거면 배당 없이 마을의 복지를 위해서 쓰자 그래야 나간사람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냐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협의체 사무장).

협동조합의 목표는 당연히 지역사회의 복지를 목표를 삼음. 동백동산 보존과 함께 지역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복지가 표준정관의 1항으로 정해졌어요(협의체 사무장).

협동조합을 꾸리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보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면 동백동산의 자원을 영구히 우리가 이용하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가치죠. 그 속에서 주민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해보자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 입니다(마을주민2).

하지만, 전문가는 마을이 자립적으로 독립하며 수익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행정의 지원없이 마을스스로 운영관리 수익이 나오고 마을에 환원하는 구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모델의 계기를 만들어가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봐요(마을만들기 전문가2)

인터뷰를 통해 본 결과, 협동조합을 구성함으로써 마을의 조직적인 소득체계를 갖추고 지역민의 일지라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과 협동조합을 통해 형성된 마을의 이익을 공동체를 위해 환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라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현재 마을 내에 수익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태이며, 현재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므로 활성화를 이루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생태관광마을사업 진행과정을 깊숙히 들여다보고 특성을 분석하여 활성화의 원인을 찾고 현재 생태관광마을의 문제점과 미래비전을 파악하여 램사르시범마을이 가지는 특수성을 밝히고 일반적인 생태관광마을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마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선홍 1리 램사르시범마을의 조성과정을 지켜본 후 마을의 이해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한 활성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와 주민협의체의 역할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을 이끌 리더와 마을 사업의 현안에 대해 조언을 받기위해 다양한 인적구성으로 이루어진 운영조직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민조직의 공동체기반 활동이다.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생태관광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노력과 주민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자원의 관리와 보전이다. 마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공유하며, 보존·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생태관광프로그램이다.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마을의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마을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이익분배의 형평성이다.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창출 되어야 하며, 지역 내로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평성 있게 이익을 분배하고 들어온 이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선순환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선홍1리 람사르 시범마을은 현재 우리나라 생태관광마을 중 성공사례로 언급되며 새로 시작하는 생태관광사업의 성공모델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생태관광마을 활성화 사례로써 선홍1리 람사르시범마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다른 생태관광마을의 귀감이 될 만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홍 1리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행정적 지원이 끊긴 후 자립적으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선홍 1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여 독립적인 운영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확신 할 수 없다. 둘째, 마을의 젊은 인력의 부족이다. 국내 농촌마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선홍 1리 또한 마을이 젊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앞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젊은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을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선홍 1리가 생태관광마을을 운영하면서 다가올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국내 생태관광마을만들기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생태관광마을의 조성 및 운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에 위한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업의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활성화요인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현재까지 운영단계에 있는 람사르시범마을은 각종 지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완벽하게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성급하기 때문에 성공요인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 선홍

1리 마을의 변화과정과 앞으로 생겨날 더 많은 생태관광마을 성공사례를 대상으로 국내의 생태관광마을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모습에 대해 제시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신겸(2007).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대왕사.
국립습지센터(2015). 습지보호지역, 지역을 바꾸다.
제주특별자치도(2010). 선홍1리.

2. 학위논문

- 김명주(2009). 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의 가치보존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김영택(2011). 향토자원 개발을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계획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김용남(2012). 지역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김일상(200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김지아(2014). 서울시 도시형 장터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박용순(2008).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송정석(2012). 계획형 생태마을의 주민의식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신예철(2012).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오정준(2002).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유희준(2014). 지역활성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규인(2012). 생태마을의 주민참여 방안연구. 공학석사논문. 아주대학교.
이원주(2013). 단계별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농촌마을 만들기의 효과와 만족도

연구. 공학석사논문. 부산대학교.

이재혁(2016). 생태관광지 갈등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공학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이지선(2010). 커뮤니티관광개발과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이지원(2016). 제주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성환(2010).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도시공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성문(2013). 슬로시티 라이프사이클 지표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전략. 문화경영및관광 전문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정창무(2014). 커뮤니티기반생태관광에 있어서 로컬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 문학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최경지(2015).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과 지역관광 발전방안. 문화경영관광 전문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최다빈(2012). 생태마을의 주민참여 연구. 공학석사논문. 아주대학교.

최보희(2015).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탁혜경(2009).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에 관한연구. 부동산학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논문

강영훈(2005). 제주의 생태도시모델로서의 야쿠시마 Zero Emission Project의 적용가능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369-388.

고선영(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관광.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2): 215-225.

고평열, 석순자, 전용철(2010). 제주도 선흘곶 동백동산에 자생하는 버섯의 생태 연구. 「한균학회지」. 38(1): 8-15.

김경화, 백종민, 손철희, 반영운(2015).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도출. 「도시행정학보」. 28(2): 267-285.

김영주(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0): 133-146.

김희순(2011). 커뮤니티 기반 생태관광의 연구: 멕시코 유카탄을 사례로. 「이베

- 로아메리카연구」. 22(1): 93-121.
- 박준범, 강봉래, 고기원, 김기표(2014). 제주도 꽃자왈지대의 지질 특성. 「지리학회지」. 50(3): 431-440.
- 배영주(2014). 마을 공동체 조직화 사업으로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성공 추진을 위한 과제 탐색. 「한국정책연구」. 14(4): 155-172.
- 서정호(2013). 구례군의 사례를 통하여 본 농촌마을만들기의 방향. 「농촌계획학회지」. 19(1): 33-41.
- 서태성(2002). 지역발전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국토」. 20-27.
- 송영민(2010).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관광학연구」. 4(81): 249~272.
- 송재일(2010). 지역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40): 24-31.
- 여관현(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염미경(2007). 지역개발과 주민이해의 정치, 「한국사회학회지」. 41집(30): 1~31.
- 오정준(2003).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4): 610-629.
- 윤순진, 이승지(2013).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3): 151~187.
- 이기태, 하현상(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한국정책학회보」. 25(1): 455-490.
- 이자원(2015). 제주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9(4): 425-437.
- 이재혁, 손용훈(2015). 평창 마하생태관광지의 주민 주도 운영 과정과 참여자의 태도에 관한 주관성 분석. 「농촌계획학회지」. 21(1): 63-75.
- 이재혁, 이희연(201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7(6): 853-869.
- 이지선, 강신겸(2010). 커뮤니티관광개발에서의 이해관계자간 협력관계 분석. 「관광연구논총」. 22(2): 75-97.
- 이진희(2006). 서귀포시 생태관광마을조성에 대한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지」. 12(2): 17-25.
- 이진희(2015). 제주도 농촌마을의 관광동기유형에 따른 관광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50: 153-180.
- 이진희 · 송재호(2007). 서귀포시 보목동 생태관광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제주

대 해양과 환경연구논문집」. 31(1):95-109.

임창수, 홍광우, 김은자, 김혜란, 최진아(2013). 도보여행길과 연계한 농촌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지」. 19(1): 91-107.

장용창, 이찬원. 제주도 꽃자왈 숲,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한국습지학회지」. 11(1): 99-104.

장은경, 공병천, 이진형(201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요소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33-249.

장은경, 공병천, 이진형(2011). AHP를 활용한 로컬 관광거버넌스 형성 요소의 중요도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2): 1-19.

전용문, 안용산, 류춘길, 김순석, 송시대(2012). 제주도 꽃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지질학회지」. 48(5): 425-434.

조상희, 윤유식(2011). 신안군 증도의 슬로시티 사례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21(1): 57-68.

조종현(2012). 자연 및 역사자원을 활용한 농어촌마을 활성화 계획. 「관광연구저널」. 26(2): 321-346.

지금중(2011).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화 활동. 「로컬리티 인문학」. (6): 311-339.

최정수(2003).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 233-247.

황달기(2015). 일본 야쿠시마 생태관광의 현황과 과제. 「일본문화연구소」. 54: 331-352.

4. 연구보고서

강미희(2010). 생태관광 인증지표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관(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김성일(2008).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태운, 김진영(2011).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김홍식(2010). 서해안 갯벌생태관광 상품과 전략. 경기발전연구원.

문순덕(2015).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화적 접근과 실천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서정원, 원현규, 김영환, 이호상, 김재준, 박찬우(2008).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

관광 인증. 국립산림과학원.

이성용, 고선영(2009).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최길수(2013). 마을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최자은, 김향자(2014).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인터넷

동아닷컴. 2015.05.26. 제주 생태계의 허파' 꽃자왈 훼손 심각하다.

<http://news.donga.com>

라펜트. 2014.07.30.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 본격추진.

<http://www.lafent.com>

재민일보. 2012.07.09. 세계환경수도·유네스코 3관왕·꽃자왈·하논·해녀 WCC 제주형 총회 의제 확정.

<http://www.jemin.com>

제주소리. 2015.06.23. 우루과이 람사르 총회에 소개된 제주 선홀리 '주민참여'

<http://www.jejusori.net>.

한국일보. 2010.02.21., 제주, 동백동산 꽃자왈 람사르 습지 등록.

<http://news.naver.com>

헤드라인제주. 2015.05.26. “미래지향적 보전 위해 꽃자왈 마을발전계획 수립해야“ .

<http://www.headlinejeju.co.kr>

람사르시범마을에 대한 관광객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원으로 2016년 학위논문 연구과제로 ‘**공동체기반 생태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 람사르시범마을의 생태관광체험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곳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람사르시범마을 활성화요인 분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그 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규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도록 무기명으로 처리되니 다소 번거우시더라도 설문조사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05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담당자: 박세진 석사과정

지도교수: 손용훈 교수

TEL: 010-8820-7843, rjdeb1234@snu.ac.kr

1. 람사르시범마을 방문에 대한 기본정보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

문1-1. 선흥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방문목적은?

- ① 생태관광체험 ② 향토음식체험 ③ 산책 및 휴식
④ 가족나들이 ⑤ 기타()

문1-2. 선흥1리 람사르시범마을의 방문주기는?

선흘리 램사르시범마을 답사 인터뷰 항목

1. 연구의 취지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생으로 '공동체기반 생태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성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램사르시범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곳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 개인신상

- 1) 성별: 남 여
연령: 20~30대 30~40대 40~50대 50~60대 60대이상
- 2) 직업: 환경단체 농민 공무원 자영업 서비스업 기타
직위: 직원 중간 책임자
- 3) 거주지역: 선흘리 그 외
거주기간: 5년이하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3. 램사르시범마을의 리더와 중간지원조직(주민협의체)

- 1) 램사르시범마을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
- 2) 추진협의체의 구성원 설정에 대한 내용
- 3) 협의체 및 마을주민 간 갈등의 존재여부와 갈등해결을 위한 실천체계 구성 (중재, 대화, 주민운영회 등)
- 4) 관리체계 구성부터 현재까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한계점 (활동의 주체가 어떤 특정한 리더가 좋은지, 시스템적인 조직체계가 좋은지)

4. 램사르시범마을의 주민조직 활동

- 1) 주민조직 현황
- 2) 주민조직 활동과정과 내용

- 3) 주민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그 내용
- 4) 원탁회의에 대한 내용
- 5) 주민참여 수준
- 6)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

5. 람사르시범마을의 자원(생태·역사·문화)

- 1) 자원현황
- 2) 생태지역의 훼손 정도
- 3) 생태지역에 대한 규제 정도
- 4) 생태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

6. 생태프로그램

- 1) 프로그램 내용 및 현황
- 2) 주민고용 상황
- 3) 연간 참여인원 및 소득수준
- 4) 체험관광객들의 반응

7. 경제

- 1) 방문객 특성(계절별, 연간, 구성, 소비수준 등)
- 2) 고용창출 및 소득
- 3) 정부 지원금에 대한 생각/ 만족도
- 4) 마케팅 전략(수익창출모델)

A Study on Activating Factor Analysis Viewed from Process of Creating Community-based Eco-tourism village

- Focused on Ramsar Village, in Jeju Island -

Se-Jin Park
Dep.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local autonomous entity and small villages competitively promote eco-tourism village business as a new local business that can raise local incomes at the same time preserve environment of village. However, most of the business be running by government without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a lot of problems caused by lack of capacity and Low participation rate from local people and organizations.

It is critical to figure out the factors needed and the directions they will work in villages in order to establish a resident participation-based ecotourism village based on the community and run it in a sustainable fashion. Based on the case analysis of Ramsar Model Village in Seonheul 1-ri for its activation, this study analyzed a case area where they were carrying out a resident-led village building project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also its implementation process.

Seonheul 1-ri is located in west side from seonheul gotgawal having a high value forest internationally, and was designated as wetland conservation area by became known that value widely. and following year it is also designated as Ramsar wetland. this villiage is operating the resident-oriented Village Project by local organization including resident consistently and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resident education and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project process of Ramsar Model Village, which was a resident-led village building project based on the community, and examine the mindsets of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support and project implementation of the village, thus identifying the activation factors of village building as well as its values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village vitalizat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everal factors that had direct impacts on the activation of Ramsar Model Village including the roles of leaders and residents' consultative groups, community-based activities of resident organization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ecotourism programs of Ramsar Village, and distributive equity. Based on those factors, the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process of ecotourism village building in the Ramsar Model Village.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form an operational organization comprised of various members to provide advice to the village leader regarding the pending issues of the village project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village building project.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stakeholders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issues.

Second, there should be efforts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residents and also education to raise the capabilities of the residents. It is also needed to put in a democratic decision-making system to set common goals through dialogues.

Third, it is crucial to for the local residents themselves to recognize the local values, share them with one another, and make plans to conserve and manage them.

Fourth, the vitalization of the village will be influenced by the ways that they take advantage of the local uniqueness to plan and run programs.

Finally, there should be an economic structure to promote the fair distribution of profit and its return back to the village in order to run it in a sustainable

manner.

The present study claims its significance by examining the formation and operation processes of an ecotourism village based on the community and looking closely at the processes of the projec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us identifying the activation factors of sustainable ecotourism village building. It is rather early to make a definitive assertion that the Ramsar Model Village still in its operational stage has graduated from all kinds of supports and been fully activated since it has a couple of tasks to resolve. The study thus has its limitations by not looking into its success factor in details.

Keyword : Eco-Tourism, Resident-Participation ,Community-based,

Ramsar Model Village, Seonheul 1-ri

Student Number : 2013-22023